

마가복음 1

Tape # C2517

By Chuck Smith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열두살 가량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쓴 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듣고 쓴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사역의 동역자였으며,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 전한 베드로의 설교들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마가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짝막한 내용으로,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열두살 가량의 소년이 한 병정에게 붙들리자 곁에 걸친 베훤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가 열두 살 정도 되었을때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쫓겨 된개인적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 라는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리아의 집은 교회의 모임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나와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문 앞에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 소녀가 본 것은 그의 천사일 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나바 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일차 전도여행때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마가도 그 때 함께 갔지만 전도 여행중에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추측하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는것을 두려워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전도여행 도중에 마가가 떠나 버린것에 대해 매우 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 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가의 이러한 불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을 때라고 추정됩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3년 이전에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들 중의 하나로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유대인의 생활 관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는 간결한 문체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도 세밀한 묘사를 피하면서 광범위한 지역들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후반기에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 오도록 부탁하는데 (딤후 4:11), 그것은 여러 면에서 마가가 바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복음의 시작이라 .” (1: 1)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 1:1 에서 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 창세기 1:1 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의 출 생에 관한 사실은 마태와 누가에게 맡기고 , 세례 요한의 세례로 그 내용을 이어 갑니다 .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수 님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 이것은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 마태가 예수님을 왕과 사자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 마가는 예수님의 종됨 (Servanthood) 을 강조합니다 .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사자로 , 마가는 종으로 , 누가는 인자로 , 요한은 하나님께의 이들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마가복음은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 처음은 말라기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

“보라 ,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 (1: 2-3)

2 절 말씀은 말라기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친구자로 보는 것이며 , 3 절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을 광야 : 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화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외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 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 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 당치 못하겠노라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에서 요한 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리집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받더니 ,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1: 4-15)

이 구절에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쓰면서 관련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 그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오시고 ,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 : 11) 고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삼위일체가 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 에서 40 일동안 사단에게 시험 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습니 다 . 그러나 마가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 하시 는 부분을 짧게 쓰고 있습니다 .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보시니 ,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잡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샅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 (1: 16-20)

마가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자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좃 은 것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 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고 ,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 그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 다 . 사실 요한복 음에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았으며 마침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해 보십시오 .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샅꾼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복한 환경의 젊은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 예수께서 곧 인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 이 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힘일러라 .” (1: 21-22)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결코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 그들은 항상 ‘랍비 헬렐은 말하기를 ---’ 하는 식으로 다른 랍비들의 말을 지주 인용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 누구든지 실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당시 사람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 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그들은 참된 권위를 가진 가르침에 접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미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편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자니이다 .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 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라 .’ (1: 23-26)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말합니다 . 이 말은 단지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 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왜냐하면 ,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 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무신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 하지만 , 이 정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 단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 왜냐하면 , 어리석은 지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 그렇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 그렇다고 그 사실이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말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생 동적인 관계 (vital relationship) 로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 즉 ,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 누구든지 이렇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23 절에서 귀신은 예수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 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 그 귀신은 예수님의 능 령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들로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 우리 역시 주님의 능력을 알고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 을 말합니다 .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 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자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 며 나왔습니다 . 마가는 ,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 이 사실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 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5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러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 권세있는 새 교훈이로다 . 더러운 귀신 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 하더라 ---“ (1: 27-28)

귀신이 쫓겨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권위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실에 놀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밀념 } 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1:29-39)

예수님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사행 1 게서 귀 신을 쫓아내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고지려고 시몬 베드로 의 집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얼마나 늦은 시간까지 예수께서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은 너무 지쳐서 아침 늦도록 영적으로 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쉽을 통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그분 은 기도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으로써 쉽을 얻으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써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새 힘을 얻고, 삶을 인도받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허물많은 우리야말로 언제나 기도가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믿는 자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1: 40-45)

예수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드는 군중들 때문에 동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질 정도로 거칠어지자 예수님은 종종 배에 오르신 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숨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이 삶의 중대한 부분이 되어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이지 결모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은 굳이 정기 모임이나 간증집 회를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며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선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원하심’ (if you are willing) 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자를 만지게 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주님이 만지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의식을 행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불치병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들이 그 병에서 나왔을 경우 ,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율법을 규정해 놓은 사실 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 하지만 어떻게 불치병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 까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원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 그것이 바로 ‘정결케 된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 규례는 ,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 에게서 진찰받은 후 칠 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 등을 관찰합니다 . 그리고 일단 깨끗해졌다고 판명이 되면 제사장은 그에게 새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 , 한 마리는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산 채로 죽인 새의 핏물에 담갔다 꺼내어 들로 날려 보냅니다 . 이런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 그는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여 지를 남겨 두셨는데 ,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 여지 를 마련해 놓으셨겠습니까 ?

성경에서 문둥병이 죄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 실입니다 . 문둥병은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해 가는 질병입니다 .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일그러져가도 감각이 없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 다 . 처음에는 손과 발부터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 문둥병자들은 통증이든 간지 림이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귀들이 그들의 발을 감아 먹어도 모르 고 ,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아도 감각이 없어서 데기도 합니다 . 더 심한 경우에 는 ,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문둥병자의 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들의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기 때 문에 지주 데거나 다치게 되어 상처를 입게 되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 그것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 다 . 즉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키기 때 문에 ,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예 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가복음 2-3
Tape #C2518
By Chuck Smith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2:1-5)

“소자야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구 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건데 ---’라고 생각 하며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 하지만 예수께서는 는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입니까 , 아니면 병 고침입니까? 진실로 한 인간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 씀하신 것입니다 . 이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이적 중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며 ,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 하지만 ,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께서 “소자야 ,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 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 ” (2 : 6-7)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 서기관들이 마음 속으로 의논한 것 중 두번째 생각은 옳지만 첫번째 생각 , 즉 “이 사람이 ---참람 하도다”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참람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 셧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의논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

시편 51 편에서 다윗이 맞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울며 “하나님이여 , 주의 인지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 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그 말씀은 “네가 나에게 관해 진실을 알고 있도다 . 과연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 어떤 이유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 그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은 젊은 관원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 마음속에는 밀히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분외에는 선한이가 없는데 ,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 ”라고 묻는 것입니다 .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거나 생각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 따라서 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 중풍병자도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선적 권위를 행하셨습니다 . “소자야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증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 (2: 8-12)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 단순히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쉽습니다 . 말이야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 그러나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 왜냐하면 , “소자야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는 금방 탄로가 나고 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 말한 결과를 금방 증명해 보이게 됨으로써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만일 상을 가지고 걸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말했는데도 그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말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 그러나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말한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그러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 하였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의 빛을 비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 그 중 한 가지는 당신의 선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 정말 놀랍지 않은가 ! ” 하며 당신에게 모든 관심과 찬사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의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닌가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바로 후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 이 나에게 향했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

어린 시절 우리는 종종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곤 합니다 . 운동장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미식 축구공을 팔에 끼고 상대팀을 향해 돌진하는 축구 선수가 되곤 합니다 . 관중들은 환호를 하고 미식 축구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 “ 3 번 쿼터백 , 볼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 두 사람 계속 제치고 있습니다 ! 골인 지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 드디어 골 라인을 넘었습니다 !! 대단합니다 . 참멋집니다 .” “와 , 와”하는관중들의 환호가들려옵니다 .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럴 듯한 자세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 너댓 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 자기가 굉장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 관심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환호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닌 특성입니다 . 그렇지만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사람이라면 , 옛 사람은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서 는안됩니다 . 사람들로부터 칭찬을받으려 하기보다는우리의 행설을통해 하나 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 습니다 .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놀란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쫓으니라 .” (2: 13-14)

레위는 세리인 마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 예수께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흥미로운 사실은 ,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한 자라고 밝혀져 있지만 , 마태복음에는 저녁식사에 대해 언급하지는 했지만 자신이 그 저녁식사를 준비한 주인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좃음이라 .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 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 (2: 15-17)

바리새인들이 이 저녁식사에 수치감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음식은 체내에서 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국한 그릇을 가지고 함께 떠먹거나 빵을 함께 떼어 먹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8-20)

금식은 하나의 영적 권리로서 자신의 육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의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금식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때가 바로 금식해야 할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고기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 있고, 또 일정기간의 기도생활 동안 특별한 어떤 것들을 먹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육의 음식이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영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세 끼 밥은 잊지 않고 찾아먹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상반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정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는 충실한 반면,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이러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을 금하고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 영과 육의 전쟁은 영의 승리로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 하는 진정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 21-22)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 어떤 종교 체제가 고착상태에 빠져 그 자체에 새 힘을 불어 넣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착상태에 빠진 체제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 속에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 낡은 가족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고정화된 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 적으로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역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리일으키실 때 우리는 고정화된 종교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이 일을 돌아보기에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를 융통성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우리는 결코 어떤 틀에 얽매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 이야 !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 !”라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 항상 유연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저 희가 부러지지 않을 것임이요 .” 만일 우리가 틀에 얽매어 있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예요 . 우린 그 령게 못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형태로 고정화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가지 틀로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 속에 넣으려 하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도록 애쓰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 니.” (2: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뉴월이 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멸알을 쟁처럼 씹어 먹었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이렇게 간식을 먹곤 했는데 ,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한 자들이 꺾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읽지 못하였느냐 ?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2: 24-28)

인간의 필요가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 그들이 시장기를 느낄 때, 마침 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율법에 따르면, 밀밭을 지나갈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을 낫으로 베어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 배고픔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즉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 그러나 밀밭에서는 자기의 필요, 즉 자기의 배고픔만을 충족시켜야지 이삭을 잘라서 밖 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이 배고픔 을 채운 것일 뿐이라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 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 즉 배고픔이 더 상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었다는 사실입니다 . 물론 안식일을 지켜 우리의 몸이 쉬을 얻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올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거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 (3: 1-5)

이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것은 불법이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었지만, 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피를 지혈할 수는 있었으나 상처 부위를 씻고 싸매고 약을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비록 그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 그들은 예수께서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가를 눈여겨 지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예수께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어리석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 예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 이시면서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라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예수께서는 저희들로 말의 울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 그들은 선 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야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저희들의 완악함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셔서 저희를 둘러보셨습니다 .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적 전통이 형식에 얽매여 손 마른 자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학관 때문이었습니다 .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신학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는 신학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시며 채찍으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관습에 얽매어 영적으로 장님이된 사람들을 볼때마다 애통해 하시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생동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관계를 종교적 체제 내에서 정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손 마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손 마른 자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은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손을 펴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펼 수 없었습니다”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손을 쭉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이 용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황폐한 영역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나 기질이나 육체의 연약함등에 관심을 갖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손을 보시고 “참 훌륭한 손이다. 이 손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손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의 그 성격으로부터, 너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모르십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논쟁이나 변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일을 나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명령대로 따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 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라. 자유하라. 극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네, 주님! 하겠습니다”고 고백하면 예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3:6)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소경이 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 방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벗어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리를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림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뿔근히 힘이더라” (3:7-11)

만일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데 배를 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11 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께 “당신은 하나님의 이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 예수의 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힘일러라? (3:20-21)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 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림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힘이러라.” (3:22-30)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힘을 입어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함받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함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 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 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 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6-19)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 마련해 두신 길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 함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진 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 주셨던 이적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반증거리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라든지 귀신의 힘을 입었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눈 앞에 나타나는 사실을 합리화시켜 부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합리화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거야.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거야”라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한 논리로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하게 거부한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함받지 못할 죄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 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31-35)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이 세상의 가족관계보다 더 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깊고 아름다운 내면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 형제 자매 보다 뉴기니아에 사는 원주민, 그것도 몇 년전에는 식인종이었던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기니아에 있는 한 마을의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추장은 그 사람에게 손에서 항상 창을 떼어놓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이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이 추장과 그 사람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추장으로부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깊은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문화적인 공감대가 없고, 의사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마을에서 서로 껴안았을 때 그들 사이엔 영적인 의사소통과 영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때 이 아름다운 유대관계가 맺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복달라고 비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여겨집시다. “누가 내 모친인가?”라고 물으시는 예수 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께로 직접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시고 ,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배우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도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널리 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5
Tape # C2519
By Chuck Smith

4 장은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 하신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 비유의 목적은 진리를 가리우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 부연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 우리는 모두 인생이나 인생에 연관된 문제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자연스럽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각각의 비유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 하지만 진리를 직설적으로 가르칠 경우 ,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 므로 비유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 어떤 비유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원 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많은 비유들이 바리새인들의 올바르게 못 한 태도와 행동에 관해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 때때로 비유 속에 암시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 , 예수님은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 장에서도 다루어졌는데 ,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 (4: 1)

3 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 이번에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자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 마가복음 3 : 1 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지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병이 낫게 된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져 보려고 했습니다 .

이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버려 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모여든 무리가 서로 밀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마다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만일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만져 보려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 때로는 모인 무리들을 상대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바닷가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

6 장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남자만 오천 명이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가족 단위로 생각해서 부인과 아이 한 명씩만 합쳐보아도 만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모인 것입니다 .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대한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 작은 배를 띄어 무리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분은 그 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 .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 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 지매 씨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 더러는 좋은 흙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 (4: 2-9)

그 당시에는 생활기반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돌로 만든 집과 망대가 있는 자신들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처럼 그들 모두는 농경사 회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 그들에게는 항상 땅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 습니다 . 그래서패수님은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씨 뿌리는 비유 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 예수께서는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실 , 즉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종류의 토양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 이 비유는 모인 모든 무리에게 참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

최근 한 사회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것은 미국사회가 농경사 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는 도중에 발생한 변화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전미국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 대 한 태도는 물론 자녀 수에 대한 생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기뻐합니다 . 왜냐하면 , 한 농부에게서 아이는 , 그가 18세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도와 약 팔백만 원 정도의 노동력을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 즉 트랙터 를 운전하는 것과 땅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 추수 때에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 가게 됩니다 . 농경사회에서 아이의 존재는 참으로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 즉 아이 들은 재산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 그들 모두가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 하지만 여자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들을 더 원하게 됩니다 . 왜냐하면 ,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많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점차 농경사회가 도시산업화된 사회로 바뀌어 김에 따라 태어나는 모 든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대학을 다니는 18세 까지 약 사천팔백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가 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 한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이것을 이 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아이들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사회현상들, 예를 들면 어린 아이 학대와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현 대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당시 그들 모두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친근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신 비유는 그들 모두가 씨를 뿌리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부담없이 와닿았습니다.

“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4: 10-12)

이 말씀이 예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곳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나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는 못해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 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있는데도 전파되는 말씀이 인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권유에 못이겨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자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왔는데도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단지 설교내용 중에 무엇인가 모순점을 찾아내어 반박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 듣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전혀 듣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 (4 : 13)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열쇠를 주십니다. 주해적인 관점에 볼 때, 모든 비유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모든 비유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을 뜻하므로 씨를 뿌리거나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러지고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를 모른다면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주해적인 관점에서의 일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4:14-20)

공중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는 말씀은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틈도 없게 됩니다.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그들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채 사단이 즉시 와서 거두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인해 약간의 핍박이라도 오게 되면 쓰러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쁨은 잠시뿐이고, 시련의 때가 오면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이 경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시떨기 속에 있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을 질식시켜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게 됩니다. 결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애쓴 사람의 수고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악한 죄인도 아니며 주님에 대해 반항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을 향한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이루어 나갔어야만 할 일들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외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만들고, 주께 드릴 것이 거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 올바른 순위를 가지고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세상으

로부터 오는 압박은 무겁고 물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 15: 16)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제 삶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 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4: 21-23)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고 말씀하십니다 .
우리 의 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 성령께서 우 리에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틀을 수도 알 수도 없는 ,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해서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라고 말씀하 십니다 .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평상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단지 우리에게 들고서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

‘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 ’ (4: 24)

오늘날의 일반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는 “ 한번 들어보자 ” 는 태도입니다 .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거친 목소리의 진행자가 “ 하나님은 꽃입니다 ” 라고 하면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곤 합니다 . 이 경우 사람들은 “ 한번 들어보자 ” 라고 생각하며 듣습니다 .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 나는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 고 말 합니다 .

놀랄 만한 회심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 그는 빅터밸리 (Victor Valley) 란 곳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성공적인 경영인이었습니다 . 그는 트랙터 대여 업도 운영하며 굴착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 여러 분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 그는 성공회에 다녔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 다시 말해 성탄 절이나 부활절에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밤 , 그는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 꿈에서 그는 그 아기를 위해 기도했고 곧 그 아기는 깨끗이 나왔습니다 .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 그리곤 다시 잠에 들었으나 세번씩 이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과 전화로 그 꿈에 관해 나 누었습니다 . 목사님은 이런 일은 폴 스미스란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그 친구의 전화를 받은 폴 스미스는 그에게 치유에 관한 성경말씀을 들려주면서 치유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

한번은 얼마 후 그가 트랙터 부품이 늦게 도착해 주문했던 고객에게 저녁이 되어서야 그 부품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 그 집에 갔을 때 집주인 남자는 없고 안주인만 있어 그녀에게 부품조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 그가 일을 마치고 떠날 즈음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 그 부인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데려왔을 때 ,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 울고 있는 그 아기는 그가 바로 꿈 속에서 보았던 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는 아기가 왜 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그 어머니는 자신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기가 휘발 유를 먹었는데 이것이 아기의 위벽을 상하게 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경련이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음식이 위에 들어가 위경 련이 일어나는 고통보다 아기의 배고픔의 고통이 더 커지기 기다렸다가 아기에 게 음식을 먹게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천천히 회복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아기가 또다시 배고파 하며 울 자

아기에게 음식을 먹여야겠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얼마 전 꿈 속에서 한 아기가 내 품속에서 울고 있기에 그 아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아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였습니다. 제가 잠시 아기를 안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은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기가 보채자 그녀는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동안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음식이 위에 닿자마자 아기가 고 통으로 소리를 지른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음식을 먹을 동안 옆에 계속 있었지만 아기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기는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는 아마도 주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클레어몬트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자유주의로 물든 학교였고 다른 일반대학보다도 무신론자가 많았습니다. 수업중에 교수가 예수님의 이적을 비롯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모두 다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들을 할지라도, 성공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말들은 안 믿어’ 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을 잠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자꾸만 그에게 들려지게 되자 그는 어느새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우연히 그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구절을 가리키며 “그건 믿을 수 없어. 원전에는 없거든...” 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기가 쓰레기처럼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자기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의 주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와 방황 끝에 그는 자기 차 안에 앉아 45 구경 권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는 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에서 그가 받았던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나머지 자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혼란 속으로 자기를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곧 그 학교를 그만두고 한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열고 사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듣느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일을 심고서는 영의 일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의 귀로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십시오. 귀로 들어가는 그것이 흔적을 남기고 즉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던져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는 안됩니다. 듣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그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받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라 .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 (4 - 26-29)

씨는 말씀입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 주일저녁에도 와서 말씀을 살펴보고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 즉 말씀의 씨가 심겨집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도 , 일상적인 생활속에서도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 곧바로 그 영향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천천히 처음에는 싹으로 , 다음에는 이삭으로 ,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 즉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매일매일 심겨지고 자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변 화되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 영광스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삶을 변 화시켜 놓습니다 . 이 말은 영으로 뿌리게 되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

가끔 우리는 열매를 즉시 보고 싶어 안달하며 참지 못합니다 . 마치 잭과 콩나 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씨를 심은 지 하루만에 모두 자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원합니다 .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정은 많은 경우 겉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 우리는 의식할 수 없어도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보게 됩니다 . 우리는 그분께서 일하신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 즉 주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아름다운 결과요 가치입니다 . 심지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이 인식되지는 않지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 날마다 이 과정이 반복 되어 일어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결실한 열매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 이전에는 우리로 화나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 기도해야지’ 라고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 참으로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어려워하거나 피 룩게 여기지 않으며 ‘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는 강박감에서가 아닌, 온유하고 인식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 내 속에 심겨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

“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 겨 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 (4: 30-32)

겨자씨는 작고 짐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 그 씨가 자라면 박하와 상록수 같은 향을 내며 , 완전히 성장하면 어떤 나물보다도 커지며 큰 가지를 맺습니다 . 그런 데 겨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매우 빨리 자랍니다 .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새들은 바로 사단으로 , 뿌려진 씨 앓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생겨난 말인데 , 안디옥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그들이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말입니다 .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와 같이 회교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고, 미국에서는 무신론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식으로 쓰여 졌습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와는 이주 거리가 멍니다.

서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 27-28)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민병대가 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민병대가 온 것은 확실하지만 기독교 민병대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민병대가 갔었더라면 그들은 음식과 옷과 약들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특히 대중전달매체 배후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소위 기독교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사람들을 죽였다고 왜곡된 명칭으로 보도함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과 중동지역 회교도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만화들을 지주 접하게 됩니다. 한 신문 시사변에는 역겨운 모습을 한 사람이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난민수용소 번호 2 번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그림이 나와있는데, 그 아래에는 “ 기독교 민병대여, 앞으로!”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신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소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에는 그분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반 유대주의 감정의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 들을 미워할 구실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 망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여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관광안내자였던 한 이스라엘인은 처음으로 기독교를 알게 된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느 공립국민학교에서 다른 소년들이 “ 그리스도를 죽인 자”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빗발치는 돌맹이를 피해 학교에서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는 이주 거리가 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는 어떤 민족적 집단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 3: 11)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는 관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정한 그분의 자녀라면 피부색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색맹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종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이며 인간이라는 종족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는 편견적인 태도 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교회 안에 이런 태도들이 지리잡아 왔다는 사실은 불행이 며 , 아직도 교회 안에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언제라도 휘몰아치려는 듯이 보 여집니다 .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 피난처라는 명목하에 온갖 악이 교회를 도피처 로 삼아왔습니다 . 교회라는 미명하에 초대형화된 세계교회협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예수님과 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이 세계교회협회라는 이름 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 모든 나물보다 커지게 되듯 , 이처럼 교회 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큰 가치를 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

‘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게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 (4: 35-38)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떠밀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일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히 주무셨습니다 . 심지어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 결국 배에 물이 가득차게 되자 제자들은 “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 ” 하며 예수님을 깨우자 ,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더러 잠잠하라고 꾸짖으심으로 바람이 멎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 (4: 40)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에는 물이 가득 차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35 절에서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 고 이르셨기 때문 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 즉 그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는 것에 유의하도록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 (4: 41)

“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빌 H 계 이르러 .” (5: 1)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고 길르앗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 이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광야를 통과하고 암몬지역을 통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 민수기 32 장을 보면 , 그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며 간청 했습니다 . 이에 “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 ” 고 모세가 책망하자 그들은 “ ---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 하면서 이 곳에 정착했습니다 . 그것은 이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반은 이 땅을 물려받았고 그때 갈릴리 호수의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 거라사인 ” 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 배에서 나오시때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힘이 없는지라 .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소리치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 (5: 2-5)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여기에서 마가는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오도록 명하셨는데 ,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 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

‘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 허락하신대...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 (5: 11-13)

이 내용으로 보아 이천이나 되는 수의 귀신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몇몇 귀신이 돼지를 미혹케 하여 움직이자 나머지 돼지들도 같이 거칠 어져 함께 바다로 내달린 것입니다 . 분위기에 휩쓸려 당황한 나머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 하셨겠습니까 ? 모세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도록 되어 었었습니다 . 돼지 는 율법에 금지된 고기였던 것입니다 .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근거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

“ 이에 귀신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 (5: 16-17)

돼지치던 지들이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가엾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낮게 된 것에

감사하기는 커녕 잃어버린 돼지가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진 지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소유를 잃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5:20)

데가볼리는 열 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 (5 : 21-24)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 아마도 어린 아이와 관련된 일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 고 통당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열두 살 가량의 딸임을 말해 줍니다. 12년 동안 한 가정에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주던 아이가 죽게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일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논쟁하는 현장에 야이로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빨리 어떤 수라도 쓰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예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절박함으로 인해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간구했습니다.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께서 손만 얹어도 아이가 살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지자 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에워싸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힘일러라.” (5:25-28)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과 긍정적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합니다. 긍정적 고백은 그 여인이 계속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단지 “ 나는 나았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Christian Science) 에 속한 것입니다.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았다” 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 내가 만지는 순간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 난 아프지 않 아 . 난 나왔어 ”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 고 백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 둘 사 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그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 유대의 법에 의해 그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며 ,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그 여인은 자기의 가족과 계속 살면서도 음식은 물론 옷도 만질수 없었습니다 . 결국 유대법에 따라 그 여인은 예배장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 그 여인은 그들의 의식에 의해 부정하다고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 12 년 동안 그 여인은 어둠의 그늘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 이와 비교해 보면 야이로는 12 년 동안 아이의 재물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가 가져다 주었던 즐거움이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 반면 이 여인은 그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 “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 ”

“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줄을몸에 깨달으니라 . ” (5: 29)

그 여인은 그 순간 병이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 그러한 병 고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어느 주일 아침 ,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잠이 깬 적이 있었 습니다 . 교회에 가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 일어나 말씀을 살펴보려 하였지만 너 무도 고통이 심해 아들에게 설교부탁을 한 후 , 우울한 심정으로 누워있었습니다 . 그런데 성도들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침대 위 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돌연 ,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 마치 문제가 무엇 이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 낮게 된 것입니다 . 저는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얼마 전 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 고열로 몹시 고생 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손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점점 내리고 있었습니다 . 간호원이었던 아이의 어머니가 체온계로 다시 재어보니 완전히 정 상이었습니다 . 이처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자신의 몸 안에 일어나 는 병 고침의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 입니까 !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해 줄 필요도 없이 바로 알게 됩니다 . 말씀 속 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 그 여인이 즉시 병 고침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

‘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밀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 하시니 ,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 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 물으시나이까 하되 . ’ (5: 30-31)

“ 주님 , 무슨 말씀입니까 ? ”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 즉 무리들 속에서 떠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 왜 갑자기 서서 누가 만졌냐고 하시느냐는 말 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으셨습니다 . 그 여인은 즉시 자기를 찾고 계심을 알았고 , 예수님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셨습니다 . 많은 무리 속에서 오직 그 여인만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 우리도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인만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습니다 .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

“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5: 33-35)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된 사실은 3:9-10, 6:56 에서 “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고 기록되었듯이 ,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신 기록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왜 예수께서 이렇게 멈추어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 더구나 이때 는 빠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그 이유는 , 예수께서 멈추어 선 그 순간 이미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 그분은 또한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의 죽음을 고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 도 아셨습니다 .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될 야이로에게 큰 연민의 정을 느끼셨고 , 또한 야이로에게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자기가 아이의 재물을 즐겼던 12 년간의 긴 세월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분을 만짐으로써 완치된 사건을 보게 된 것 입니다 .

‘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들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5: 35-36)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려 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 야이로가 주께로 돌아선 때는 분명 온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듯 창백하고 혼란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 “ 오 , 주 님 , 너무 늦었습니다 . 내 아이가 가버렸습니다 .” 그는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 ‘ 주께서 단지 딸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해도 낳았을텐데...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

‘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5: 38)

이 당시 죽은 자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 더 크게 울면 울수록 더욱더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들은 크게 우는 일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에 고용되었습니다 .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한 가정이 당한 슬픔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 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5: 39-41)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헬라어를 쓰셨지만 이 경우에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말해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아주 친근한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로의 열두 살 된 귀여운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떡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5: 42-43)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 소녀를 고통과 슬픔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 부모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엄청난 슬픔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매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의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주께서 그분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7
Tape # C2520
By Chuck Smith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계시며 회당장 아이로의 딸 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 사렛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 이 곳은 가버나움에서 약 84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

“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 . 인식일이 되어 회당 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될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 (6: 1-3)

배척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 스칸달리조” 라고 하는데 ,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인간적으로 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래서 “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이들이라 하지 않고 마 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서른 살까지 집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 목수는 헬라어로 “ 텍톤”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능숙하게 해내는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 다시 말해 생소한 것도 무엇이든 척척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작은 창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큰 집을 짓는 일까지 예수님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 아마도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자라 성년이 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육정으로만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 스칸달리조’ 라는 의미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졌고 ,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돌 , 즉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 (6 : 4)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척들에게서도 존경받지 못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 그분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으나 고향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

‘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 (6: 5-6)

단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 불신앙으로 사람들의 마음문이 닫혀 그분께 나아오지 못하였습니다 . 단지 소수만이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

‘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 (6:7-11)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 : 47-48) 라고 하시면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정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예언을 들었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심 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성경구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 은 주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 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보다 복 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 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했던 도시들은 심 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은 세 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 회개하라 .”

“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 13)

야고보서 5 : 14 에도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고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 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 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고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 누가 나를 만졌느냐 ?”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그 여인에게 믿음은 단순히 ‘ 예수님은 히질 수 있어. 병을 고치실 수 있을거야’ 라고 수동적으로만 생 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름 바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 그들 기운에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치유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 체를 통해 영광받으시는 것이지 몇몇 장로들이나 개인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없습니다. “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 ”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듯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으나, 치유 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하되, 헤롯은듣고가로되 내가목베인 요한그가살아났다하더라.” (6: 14-16)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알려면 먼저 헤롯에 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족보는 아마 역 사상 가장 골치 이픈 족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고 말한 후에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한 자입니다. 편집광이었던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편집광이 된 것은 아마도 150 센티미터도 안되는 작은 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큰 야망을 갖게 하였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큰 돌들로만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바로 헤롯의 보성심리에 의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이 벽은 신전이 있는 산을 둘러싼 거대한 옹벽이었습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사다” (Masada) 라고 불리는 큰 건축기념물도 헤롯 대왕 때 지어진 것입니다.

그는 첫 아내인 도리스와 이들을 버리고, 마리암네라는 여자와 재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중 한 이들이 결혼해 낳은 딸, 즉 헤롯 대왕의 손녀가 헤로디아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집광이었던 헤롯은 자기 새 아내와 두 아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여 모두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마리암네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마리암네를 기념하는 탑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 후로 헤롯의 편집증세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빌립을 낳았는데, 헤롯 빌립은 로마로 가서 상인이 됩니다. 헤롯 빌립은 자기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헤로디아는 살해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는 빌립의 조카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또 다시 사마리아인 인 말타스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갈릴리 지방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을 방문했는데, 그때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진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빌립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결혼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부인이 된 헤로디이를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금하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대로 행하지는 않았으나 세례 요한에게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야심으로 가득 찬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에 게 왕의 칭호를 주기는 커녕 도리어 그를 “골” (Gaul) 이라는 곳으로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여러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하자 헤롯은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아주 관능적인 춤으로, 그 당시 창녀들이 추던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정욕을 부추기려고 추는 춤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앞에서 자기 딸로 하여금 이런 춤을 추게 할 정도로 도덕 관념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헤롯은 이 춤에 자극되어 딸에게 “무엇이든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구하는 살로메의 말에 왕은 심히 근심스러웠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냈습니다. 나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온갖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 그는 자기 마음에서 세례 요한 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 오히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면 위로가 되었을지

도 모릅니다 . 헤롯은 자신이 범한 일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

‘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 (6: 30-31)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하게 하시고 , 복음전파의 일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들이 행했고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 ,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로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관해 들은 예수님은 31 절에서 “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잠시 앉아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

“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 (6: 32)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항상 바빴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들을 쉬게 하려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 그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장소로 갔습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 곳에 와 있었습니다 (6 : 33).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 직경 약 10 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작은 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6: 34)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 하고도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사려 없음에 대해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 이 곳에 온 줄도 모르고... 우리를 좀 내버려 둘 수 없나?’ 하며 귀찮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되자 제자 들은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 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6 : 35-36). 38 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2 절에 “ 다 배불리 먹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소 게걸스럽게 먹어 과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6: 43-44)

여기에 기록된 두 가지 이적은 주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다시 말해 여자와 어린 아이를 모두 합하면 아마 만 명에서 만오천 명까지도 됨직한 무리들을 먹이신 일과 열두 바구니나 되는 음식이 남은 것입니다.

“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6: 45-46)

예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잠시 쉬려고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곳에서도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들을 섭고 먹이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설 준비가 다 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신 뒤 무엇을 하십니까? 46 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에 진정한 힘을 얻고 참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다고 느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았다면 우리 삶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면 오늘날 세계는 지금보다는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므로’ (6: 47-48)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그날 밤에 보름달이 떴다면 달빛이 물 위로 반사되어 밝게 비추기 때문에 멀리서도 바다에 떠 있는 배 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담바람이 거스리는 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대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다가 그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통하여 마치 장미꽃 만발한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것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 주님이 그 들을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고 , 이미 지쳐 있던 그들은 더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 그들이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 왜냐하면 아 무리 노를 저어도 앞에 보이는 뱃새다의 불빛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고 그 자리 에 머물러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 이시고 , 그들은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 우리는 그들의 순종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

“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카려고 하시매 .” (6: 48)

밤 사경은 새벽 3 시부터 6 시까지의 시간대이므로 예수님은 좀더 일찍 그들에게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 제자들은 정말 힘들고도 어렵게 배를 저어가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 예수님은 참으로 유머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 예수님은 물 위로 그들에게로 걸어가서는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마치 못보신 체 그냥 지나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그들은 곧 계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 사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네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

“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 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오니…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 (6: 54-56)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치유되자 사람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 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 이것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집착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

‘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7: 1-2)

의식적인 씻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것은 위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모두 의식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씻음과 관련된 유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후에 이 모든 규칙들과 관련된 것들이 “ 미쉬나” (Mishi-nah) 라는 유대의 법을 기록한 책에 모두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단순히 가서 씻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의식에 따라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라 씻어야만 했습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의 손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더럽다고 규정될 경우는 누군가가 부정한 손으로 만진 것을 그가 만진 경우입니다 . 만일 내가 이방인으로서 동전을 만졌는데 그 동전을 어떤 사람이 만지면 , 나는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이므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 면 시장 같은 곳에서 누가 어떤 동전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에 와서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하나의 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 그들의 규정대로라면 약 달걀 두 개 분량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

첫번째 씻음은 맨 먼저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손으로 물을 부을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물 붓는 손을 씻습니다 . 손가락을 함께 씻고 손바닥 , 손등의 순서로 손 만 씻어야 합니다 .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 누군가 가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씻는 데 사용 된 물도 이미 그 사람과 닿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 그래서 손목 아래로 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 이 물이 그 사람 몸에 떨어지면 다시 부정하게 , 즉 의 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이 몸에 떨어지면 다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붓게 하여 그냥 흘러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항아리에 파리가 앉았을 경우에는, 이 파리가 이방인의 어깨나 또 다른 부분에 앉았던 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 항아리를 씻기 위한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파리가 그 항아리의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면 그 항아리를 깨뜨려버릴 것입니다. 그 조각에 묻은 기름조차 몸에 묻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철과 청동으로 만든 것들은 씻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면이 평평한 접시 같은 것들도 다시 사용 가능했으나 밀이 움푹 들어간 용기가 부정해졌을 때는 모두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미쉬나”라는 유대인들의 유전을 기록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 사야가 너희 외 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7: 5-9)

얼마나 쉽게 인간의 유전이 계명이 되어 독단적으로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만든 유전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사람의 유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전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을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입니다.

이러한 유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유전들은 성경적인 기초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 가운데에서 발생했음을 발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 유전들을 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새 계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장난과 접대」의 전통으로 알려진 “할로윈축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축제가 오면 아이들은 마녀와 요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가 자녀들이 마녀나 요괴나 귀신처럼 분장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막겠습니까? 분장을 마친 아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탕이나 과자들을 얻어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강탈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집이나 가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창문에 비누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모두 빼앗아 달아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축제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축제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한 위험스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삿속으로 레이저 칼이나 장난으로 독약을 만들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강탈 계획을 부추기고 지원해 줍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이, 인간의 유전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 온 것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의 유전으로 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계명이 성경적 기초 없이 유전적인 기초만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단 한 개의 성경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은 분명히 유전에 기초한 교리이지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례식도 단지 많은 유전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는도다.” (7: 8-9)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7: 10-12)

유대법에는 부모님을 저주하는사람을들로 쳐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유전을 악용하여 “고르반”이라 하면서 선물을 드린 후에는 원하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도 돌로 쳐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 이것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 다 . 사실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있었으나 “ 고르반 , ” 즉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께 드릴 것이 없다 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것 입니다 . 이미 모든 것을 주께 드렸으므로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유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

“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 (7: 13- 14)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껏 해오신 수많은 개혁적 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내용입니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었습니다 . 그 중 하나가 돼지고기였는데 ,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부정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명령했는데 , 수 백 명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마카비 혁명기 에도 수천 명이 돼지고기를 먹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

“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 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7: 15-23)

돼지고기는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것은 그들의 유전과는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 먹는 음식은 “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 (7 : 19)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 즉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병이 들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 입니다 .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 영적으로 더러운지 청결한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 마음이 청결 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마 5 :8)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 겉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어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56 킬로미터 떨어진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 여기 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

“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 구하거늘 ,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 (7: 25-27)

여기에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안타까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 그런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여 예수님 은 “ 개 ” 라고 까지 칭하십니다 . 그 당시에는 버려진 개들이 많았는데 , 사냥고 더 러운 개들이 아이들까지 위협하자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 말은 인격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의미였습니다 . 예수께서 그 여인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 그런데 “ 개 ” 라는 뜻의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된 개에 대한 의미와 다른 헬라어였습니다 .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집에서 기르는 애 완동물로 , 항상 식탁 아래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였습니다 . 대부분의 유대 가정에는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지냅니다 .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아이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옴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 러기를 먹나이다.” (7: 28)

그 당시에는 식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도구, 즉 손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빵을 손으로 떼어 소스나 스프에 찍어 먹었습니다. 바로 빵이 수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식사는 아랍식으로 주로 손을 사용하여 빵으로 음식을 찍어 먹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손에는 기름이 묻고 약간의 소스가 접시에 남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 랩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빵 조각으로 접시에 남아 있는 것들을 닦아 식탁 옆에 앉아 있는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입니다. 이 빵에는 소스와 음식 찌꺼기들이 묻어 있어 강아지들이 주인이 주는 이 빵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멸스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7: 31-35)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먹은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매우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정한 틀에 의해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원칙대로 행합니다.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방법론(methodology)을 발전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특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며 어떤 규정된 틀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 사람이 모두 서로 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에 박힌듯 규격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즐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규격화된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역의 어떤 시점에 이르러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투산(Tucson)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환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에서 천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온화한 기후와 알맞은 습도로 인해 그 지역으로 요양차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늘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주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시간에 종종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데이빗맛프에서 가까운 크레이 크로프트에서 가진 야외모임에 왼쪽 눈이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서는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 부인의 왼쪽 눈에 얹고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손에 전혀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떼 직후에 그 부인이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보입니다. 보여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돌아다니며 온 이웃에게 자기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의 한쪽 눈이 실명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부인은 한쪽 눈을 가리고 글을 읽어서 자기가 보게 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로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제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그 부인에게 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환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지만 환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저는 이전에 기도했던 방식대로 다시 반복했으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공식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식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하 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에 규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 하실수록 저 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7: 36-37)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에 관해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라도이르지 말라고경계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널리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 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이적에 흥분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미리 막으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예정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가 “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고 이르자 그분은 “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 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그분을 세우려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 적을 보고 “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 으로 떠나가셨습니다.(요 6 : 15)

“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 다 .” (시 118:24) 메시아가나타나실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사람들 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아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들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36 절의 말 씀처럼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 널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머거리 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도록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입니다.

8 장에서는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과 비슷한 사천 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믿 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시 기를 간구합니다. 기 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보다 유익한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여러분 가까 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힘과 사랑 속에서 성령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8-9
Tape # C2521
By Chuck Smith

“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되 .” (8: 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고도 오천 명을 배부르게 먹으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행하신 또 한 번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 일을 금식하며 주리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께 “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유혹한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은 이때 이적 일으키는 능력을 그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는 기꺼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 즉 그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 그 당시 ,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많았지만 ,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기에서 “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대 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들의 육체적 결핍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려가 깊으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곤궁함에 무감각합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

“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시홀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 그 중에는 멀리 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 (8: 2-3)

예수님은 자신과 3 일 동안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볼 때 , 금식 3 일째가 우리 몸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 하지만 , 3 일이나 4 일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며 , 극심한 배고픔을 잊기 시작합니다 . 그러므로 장기 금식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3 일째가 가장 힘든 때에 속합니다 . 예수님은 , 3 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 그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

“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 예수께서...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 배 불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 (8 : 4-9)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셔서 많은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 처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오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에는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였습니다 . 이때 사용된 ‘ 광주리’ 라는 용어는 당시 이방사람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 여기에서 사용 된 ‘ 광주리’ 라는 용어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전형적인 형태의 ‘ 광주리’ 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 이 사실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든지 간 에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오천 명을 먹이신 장소가 벳새다 근처였는데 , 이는 유대의 도시 로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더 들어간 호수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 남은 조각을 모으기 위하여

이방인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들은 이 점에서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당연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 으로 전세계의 이방인들을 이적적으로 먹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 예수께서 저희를 흠어 보내시고 ,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들버뉴다 지방으 로 가시니라 .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구하거늘 .” (8: 10-11)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 많은 경우 ,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자들은 자기가 볼 만한 묘기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하곤 하였습니다 .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 요단강을 들로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또 어떤 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 전세계에 동시에 위성 텔레비전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따위 말입니다 . 그러나 스스로 메시아인 체했던 자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거창한 묘기들을 실 행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도 유대인들은 단념하지 않고 메시아의 손으로 일으켜지는 초자연적인 이적 같은 현상들을 여전히 추구했습니다 .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도 역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시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 고 .” (8: 12)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에게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 적이 없느니라” (마 12 : 39-4) 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그저 군중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기 위한 이적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 워 주는사역을감당하기 위해서 이적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나 ,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 한 번은 헤롯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 마치 그가 마법사들에게 신기한 묘기를 부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헤롯을 위하여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받으셨을 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 그래서 예수께서는 “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도마는 ,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고 그에게 전해주었을 때 “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에 넣으며 ,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20: 25) 고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 “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고 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 즉 도마가 “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곳에 계셔서 그 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 비록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 (마 18:20) 고 하신 말씀대로 ,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으로 직접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으며 , 도마는 이에 감히 손을 대 어 보지도 못하고 “ 나의 주시며 ,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고 하셨습니다 . 우리 주위에는 항상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종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적을 추구하는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믿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 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믿고 따라가는 형태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 | 자들이 떡 기저오기를 잊었 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 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 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8: 13-21)

이는 “ 너희에게 떡 한 덩이가 있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 누룩’ (leaven or yeast) 은 항상 ‘ 악’ 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누룩 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로써, 유대인들은 먼저 만들었던 떡반죽에서부터 항상 조금씩 떼어 놓아 누룩이 다 퍼지게 한 후,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드는 떡반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발효하기 시작한 누룩이 떡반죽 속으로 스며들어가 떡 전체 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즉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 새로 만 드는 떡 반죽에 스며들어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현상 때문에,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 악’ 의 적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용납된 최소한의 ‘ 악’ 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 악’ 을 주의하라는 말씀 입니다. 그런 종류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 그들을 오염시킨 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잊고 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 뱃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 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 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8: 22-26)

예수님은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면서 행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처음 안수하 셨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은 흐리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안수 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흥미롭습 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중 유일하게 기록된 ‘ 점진적 치유’ (gradual healing)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 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을 때는 예수께서 두번째 로 안수하고 니셨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기록된 것으로는 유일한 점진적 치유 사건입니다. 병의 치유에 관해 대부분의 사 람 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 받지 못하는가?’ 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모든 종 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점진적인 치유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의 과정도 기록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맹장이나 기타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꿰맨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 환 자의 살을 다시 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사는 수술 부위를 꿰맨 뿐입니다. 수술 후에 그 곳에서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어 세포와 세포가 서로 결합하고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이 신비한 치유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거룩한치유의 과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거 룩한치유의 과정입니다.

“ 신적인 치유 (devine healing) ” 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 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며 , 단지 일종의 정신치료법 (psychosomatic)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비평가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만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 으로 그가 그 정신적 장애에서 놓임받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면 , 도대체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나는 도무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혹 그들 자신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실로 순전히 정신병적인 일입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비전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치유를 허락하실것입니다 .

저는 이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고 , 점진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 또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적적으로 치유되고 ,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치유받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 또한 하나님께 서는 이따금씩 매우 자연스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저희들은 단지 기본생활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 그때 저희들은 가족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자주 느꼈습니다 . 주기도문에도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지만 , 우리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그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돈봉투를 가진 사람을 우리집으로 보내 주신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때는 보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돈봉투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편으로 돈을 보내 주시지는 않았습 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식료품이 담긴 광주리를 든 사람을 저희 집에 보 내 주시지는 않았습 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때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며 “ 오늘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저는 “ 그렇시다 ” 하고 쾌히 승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 저녁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때로는 “ 오늘 우리가 처리해 야 할 시체가 있는데 와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하면서 시체안치장에서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 그러면 저는 얼른 대답하고 가서 시체 한 구 처리하는 데 5 달러씩 받으며 일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 하나님 , 오늘 저녁거리를 주신 것 을 감사합니다 ” 라고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습 니다 . 그 분은 자주 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 역사 하십니다 .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저는 하나님의 모습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 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 그렇다고 모든 장미꽃 앞에서 “ 오 , 하나님 ”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 자연을 바라보면서 “ 오 , 자연이 곧 하나님이구나 ” 또는 “ 어머니적인 자연이 이렇게 했구나 ” 하면서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매우 바르지 못합니다 . 분별력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 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 이것이 자연을 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저 것으로 바 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 (롬 1 : 25) 고 하였습니다 .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들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근시안 적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본문을 살펴보면 , 예수님은 전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 그분은 손을 대고 고쳐 주기를 기대하는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 전에 다른 소경을 고쳐 주셨을 때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으로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주시면서 “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 고 하셨습니다 .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형식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집어 넣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거나,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로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에만 옹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옛날 이스라엘 자 손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도 저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시고 점진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셨으며, 어떤 때는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손을 대지 않고 말씀 한 마디로만 고치셨으며, 어떤 때는 병자의 집에 방문하여 고쳐 주셨고 또 어떤 때는 그저 “집으로 가라”는 한 말씀으로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틀에 얽매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호버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 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8:27-29)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끝에 위치한 벳세다를 출발하여 갈릴리 윗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 강의 주 수원지인 헤르몬 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배니어스 (Banyas)’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곳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 물이 샘솟아 나왔던 동굴 바로 옆에 사원을 지었는데, 그 후 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요단강 물이 이 동굴의 30미터 정도 아래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 ‘팬’ (Pan)을 위하여 그 곳에 사원을 지었고, 그 곳을 ‘패니어스’ (Panaea)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패니어스’의 피울 발음이 까다로워 점차 ‘배니어스’ (Banyas)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 날에는 그 이름이 ‘배니어스’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왔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의심했음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원스럽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은 자’ (the Anointed One)라는 의미이지만, 헬라어로도 ‘그리스도’는 ‘기름부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로서 공식적인 왕이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8:30)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시흘만에 실이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예수께서 돌 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시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8 : 31-33)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후에야 자신이 십자가 에서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왜냐하면 , 제지들은 메시야에 대해 여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메시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 메시야가 하나님 의 왕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 로마치하 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 하여 이 땅에 세워져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메시야에 대한 개념이었으므로 , 예수님은 베드로가 “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되어 죽임 을 당하여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예수님은 이것을 제 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야의 모습으로 행하 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 다시 말해 즉각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일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에 “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되었으며 ,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 질고를 아는 자라 .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 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사 53 : 3)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뿐만 아 니라 다윗도 시편 22 편에서 메시야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 이것도 성 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 “ 보아라 , 일은 너희들이 생각 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버림받아야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 메시야가 끌 처질 것이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도 ,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이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 하셨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 그들의 메시야 개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말씀이었기 때문에 , 제자들은 “ 내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

어안이 병병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 “ 사단아 , 내 뒤로 물러가라 .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 각하는도다 .”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을 때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사 랑한 한 인간으로서 그의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 그는 예수님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는 인간적 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다면 , 그는 메시야가 죽임을 당해야 하며 ,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

“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 (8 : 34)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 무엇보다도 먼저 ,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거리가 멀니까 ? 오늘날 이 세상은 “ 너 는 너 자신을 주장해야만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우리가 우리 자 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게만 된다면 ,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예수께서 “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 라고 말씀하십니다 .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 곧 그리스도 예수 의 마음이니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 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 곧 십자 가에 죽으심이라” (빌 2 : 5-8) 고 썼습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늘 보좌를 부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고 말씀 하신것입니다.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8 : 35-36)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자, 그것이 의미이고 목적인 자, 그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야망이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을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누군가에게서 지신이 육십번째 생일을 맞던 날이 바로 아담 이래로부터 1퍼센트의 시간을 산 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차지하면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100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98 세가 되어도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영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히 11 : 25) 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죄가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누리는 낙은 분명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히 11 : 26)

‘ 사람이 무엇을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8 : 37)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맞바꾸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인디언들이 미대륙에 이주한 초기의 장사꾼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황금과 은으로 만든 조각들과 백인들의 무가치한 구슬들과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값나가는 황금 공예품들을 그저 단순한 구슬들과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혼을 팔아 어떤 것들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불하는 장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거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값싼 구슬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 누구에게 이걸 주고 영혼을 살까? 하고 말합니다.

‘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8 : 38)

예수님은 앞에서, “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 일만에 다시 살아 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 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메시아는 바라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지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언젠가 메시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9 : 1)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다 죽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잘 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석으로 인해 예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이 우스꽝스럽거나 어리석은 말처럼 틀린다면 제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호엘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9 : 2-4)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벌립보에 있는 헤르몬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가운데 변하였고, 그분 의 옷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된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 가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 절에서 예수님이 “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제 자들은 예수께 이끌리어 높은 산에 올라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할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적 제한시대 (time zone) 를 벗어나 영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1 절에서 선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영광과 권능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답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 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이다 하니.” (9: 5-6)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을 거룩한 땅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사원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다가도 당신이 입을 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어리석은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 7)

히브리서 1 장에 “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날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 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대개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의 강 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과 선지자에 반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 (9: 8-13)

왜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인자에 대하여는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완수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된 것까지도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서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 (9: 14-16)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남아 있던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마도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양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는 목자처럼, 늑대에게 잡힌 양을 구해 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

갈보리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마다 모이는 성경공부반에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혹시 우리 양들을 해치러 온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월요일 밤 성경공부 모임에 성도들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둬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 저들을 내보내자” 고 말한 후 함께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 이리 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막 거둬난 자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꽂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둬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단체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들을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침착하게 “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 라고 묻자, 그들은 “ 오,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 나에게 형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 오, 하나님

을찬양합시다 . 할렐루야 ! ” 하며 계속해서 탄전을피우기에 , 그들에게 저는정색을 하며 “ 당신들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본능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 “ 윌트니스 리 단체에서 오셨지요 ? ” 라고 질문하자 , 그들은 또 “ 할렐루야 . 형제님 , 주님을 찬양합시다 ”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 이에 성경공부 인도자가 그들에게 “ 나가시오 ” 라고 말하 자 여전히 “ 할렐루야 . 형제님 , 하나님을찬양합시다 . 형제님들은 지방교회 교인 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이곳도 지방교회가 되실수 있습니다 ” 라며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일한 참교회라거나 ,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울안에서 하나되어 예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 “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 ”

“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 니이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여 | 수를 보고 곧 그아이 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 곧 그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 로되 내가 믿나이다 .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 ’ (9 : 17-24)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 우리도 자기의 아들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귀신으로 인해 거꾸러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 며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 때로 발작이 심할 때면 불 속이나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그의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 예수님 앞에 선 그 아이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넘어져 구르며 입에 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 절망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 라고 간청하자 , 예수님은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 고 하셨습니다 .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 내가 믿나이다 .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 라고 하였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 그때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선아 ,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 다시는 들어가지 말 라 ” 고 말씀하셨습니다 .

“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 는 예수님의 두번째 명령은 이주 흥미롭습니다 .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 물없는 곳 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 (눅 11 : 24-26) 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귀 선에게 “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 고 명하신 것입니다 . 앞으로 ‘ 귀신훈 ’ (demonology) 에 대해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논 하고 싶지 않지만 ,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귀신들린 경우가 많지 않지만 , 귀신들렸다고 상상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귀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상태에 있습니다 .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귀신의 역\ 까 이 곳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에는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형태 (cult) 로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귀신들리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 히 그 귀신을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 ” (9 : 26-29)

예수님은 “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 귀신의 영의 세계에도등급이 있습니다 . 성경에는 귀신의 주권과 능력이 차 별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어떤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하여 사람에게서 쫓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 본문에 나타났듯이 그때 제자들이 쫓아낼수 없었던 귀신은 아마도 더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예수께서 그 귀신 을 쫓아내신 후에 “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this kind) 가 나갈 수 없 느니라” 고 하신 것도 악령의 등급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귀신론을 다룰 때 귀신의 다양한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 고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연고더라--.” (9 : 30-32)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 주목해 보십시오 .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메시아의 개념 은 사실 다른 것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 고 계십니다 .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 자 체를 두려워했습니다 . 왜냐하면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 저희 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 (9: 33-34)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 베드로는 아마도 “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거야!” 라고 주장했었는데도 모릅니다 . 그들은 예수님께 자 기들이 벌인 그 유치한 논쟁에 대해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 우리도 마찬가지 지입니다 . 예수님이 우리에게 “ 너희는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 하시면 우리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물으시면 당 황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허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사절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의의식을 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께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꼴이 되며 못사람을섬기는자가되어야하리라하시고 .” (9: 35)

예수께서는 앉은 상태에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첫째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이따금씩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주셔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 때때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정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혹은 “ 네가 그때 실패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 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정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피할 수 있고 ,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조목조 목 지적해 주십니다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 “ 하나님은 그아들을세상에 보내신 것은세상을섬관하려 하심이 아니요 ,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저를 믿는 자는 심관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 (요 3 : 17-18)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 하지만 ,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 은 아닙니다 .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하지 않으십니다 . 우리가 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 어 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 누가 큰 자냐 ? ” 하는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 “ 보아라 . 너희가 최고가 되고 싶으냐 ? 이 방법을 써 보아라 .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꼴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 고 하셨습니다 .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 (마 20 : 26-27) 고 쓰여져 있습니다 . 또한 예수님은 앞에서 “ 누구든지 제 목숨 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 (막 8 : 35) 고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 네가 최고가 되고 싶 으냐 ? 이 길이 최고로 가는 길이다 . 그런데 이 길은 네 생각과는 다른 길이다 . 야 망과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여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 또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뒤로 떨어뜨리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 최고가 되는 길은 종의 위 치에 서는 것이다 .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 ” 그러므로 교회 목사 의 위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 ‘ 목사 ’ (a minister) 는 실질적으로 ‘ 종 ’ (a servant) 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 목사는 성도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 을 받은 것입니다 . 이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 “ 으뜸이 되려느냐 ? 그 러면 종이 되어라 ” 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

“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 누 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누 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잃지 않으리라 . ” (9 : 36-41)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입니다 . 사실 ,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랄 뿐 그 누구 도 어린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 다 .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 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 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

여기에서 요한은 ‘ 종파주의 ’ (sectarianism) 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 동역 ” 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면서 “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 ” 고 말씀하십니다 . 즉 “ 그들을 그냥 두어라 ” 는 의미입니다 .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X 까 누구인지 분 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우리의 대적은 이 곳에 있는 다른 교 회들이 아닙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 다 . 하지만 현실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너무 바빠서 사단의 세력을 효과 적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 다 .

“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뱃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리라 . ” (9 : 42)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때 요한이 종파주의 문제를 끄집어 내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간략히 일축시키셨습니다 . 그리고 다시 어린 아이 문제로 돌아가서 “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뱃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리라 ” 고 말씀하셨습니다 .

은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믿는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목에 뱃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연자뱃돌은 지금도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크기가강대상만하고, 가운데 둥근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둥글고 납적한 돌입니다. 이 돌을 목에 매달고 갈릴리 호수에 던져진다면 대단히 빨리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시키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플 때마다 손자들을 불러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희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도대체 어린 아이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뒤틀려져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뒤틀려진 종류의 마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뱃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기차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43-44)

예수님은 48 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자유주의 학자들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아니다”라든가,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자유주의 목사들과 유니테리안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대자유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곳에 있을 수 없어. 이곳은 존재하지 않아.” 유니테리안들은, “이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야”라고 말할 것이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 없다.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허버트 W. 암스트롱이나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지옥에 대해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는는 안 될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 45)

여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에서 흔히 “지옥”이라고 쓰이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흔히 쓰이는 “지옥”은 “하데스”(Hades)입니다. 이곳은 불의한 자가 죽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땅 속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데 쓰인 헬라어는 “게헨나”(Gehenna)입니다. 이곳은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닙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두는 곳이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히 그들에게 제공될 거주지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 47-49)

소금이 정화(伊化)를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그들은 불로 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9: 50)

예수께서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 우리는 감히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 “ 하나님 ,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 이제 주 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섬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사 , 우리로 그 말씀을 받아살게 하옵소서 .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

마가복음 10-11
Tape #C2522
By Chuck Smith

마가복음 10 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0: 1)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은 여전히 의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야 만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사 유대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남쪽 예루 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암몬 지방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이 때를지어 예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도 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10 : 2)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체포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단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 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신 24: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이 구절을 토대로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들에 의한 가르침을 전승해 나가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란 결혼한 첫날밤 여자에게서 처녀성의 흔적이 없다는것, 즉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것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와 이혼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펴는 이 학파는 여자의 부정에 대하여 편견되고 제한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저지른 간음만이 유일하게 이혼을 성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여자의 부정 문제에 대해 매우 자유스러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식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여자가 소란스러워 옆집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여자의 부정 요건이 됨으로 남자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에 ‘아카비’라는 한 랍비는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그것도 자기 아내의 부정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런 이유를 근거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침예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 (10 : 4-13)

사실 힐렐 학파의 자유로운 율법해석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해지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고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자는 남자 한 사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자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때에만 완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고, 남자는 여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중 어느 쪽도 혼자서는 완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문제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룩한 의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성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주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결혼은 분명히 나누어 주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만일 남자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자기 평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나누려 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기꺼이 주려 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혼생활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과 이혼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한 번 해보는 차원으로 여기고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결혼생활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며 이해심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쓰디쓴 경험을 맛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은 했지만 서류상일 뿐이요 실질적인 결혼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 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은, 젊은 남녀가 서로 미친 듯이 사랑하여 결혼하고서, 서로에 대한 황홀감이 사라지자 그것을 못 견디고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봅니다. 이 주장은 옳습니다. 결혼은 영적 사역의 외면적 표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적합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적합하지 못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대로 해서는 안되고, 기도하면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그 실수를 수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을 지옥불로 정죄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혼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그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전에도 이혼했었으니까 당신과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재혼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와 맺어진 관계를 힘써 지속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밋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고 후에 밋세바와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밋세바는 그들의 첫 아기를 잃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혼한 상태이거나,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억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아내를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남편이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0: 14)

오늘날에도 축복받기 위해 랍비에게 가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작은

키에 긴 회색 수염이 있는 예멘 사람인 한 랍비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통곡의 벽 (The Wailing Wall) 근처의 큰 마당을 거닐면서 기도문을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많은 젊은 랍비 후보생들에게 대단히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랍비에게 가서 머리를 들이대면 그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전통에 따라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한 살이 되면 대개 랍비에게 데려가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온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내어 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찮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0:15)

어린 아이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무신론 같은 것은 배워야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머리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10:18)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른 이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 사람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께서 만일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너는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다. 나를 따르라” 고 하신 말씀은 참람죄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너는 네 삶의 중심에 그릇된 것, 즉 돈을 모시고 있구나. 네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 너는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나를 따라 오너라” 고 하심으로써 그의 의식을 깨우치려 하신 것입니다.

“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10: 21)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부수적으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중심 말씀은 “와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으라” 였습니다 .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 막았던 것은 그의 수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갖는 관계나 직업, 우리의 야망이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 를 지고 예수님을 좃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젊은이의 하나님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거짓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하나님을 알라. 네 중심에 모셔라. 나를 따르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이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히 생각한 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종을 불러 “나의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다음에 보자. 나는 예수님을 따르련다”고 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그저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여생을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10:23-24)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표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는 말씀은 제자 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철학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이 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이 번창의 한 방법” 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부르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바늘귀’는 한 도시의 주요 진입문에 딸린 작은 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밤이 되면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닫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난 작은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에서 내려서 기어 들어가야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바늘귀’를 기어 들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많은 땀과 노력을 들이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간에 예수님은 ‘불가능’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분투로 가능한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 진실 한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수있다” 는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불가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0: 26-27)

제자들이 경악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행위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 삶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길을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능력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하셨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들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할수 없습니다. 제가 말아서 애쓰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내놓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자로서 먼저 될자가 많으니라.” (10 : 28-31)

베드로는 많은 재물 때문에 되돌아간 그 청년과는 달리 자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강한 전통이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른 사람들은 때로 그들의 재산과 유산과 집과 가정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자로 사회에서 추방되어 기본적인 가족관계

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집에서는 대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연고로 아내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 꺾박을 받고, 네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 수백배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갖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아는 청년의 결혼식에 가서 대기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너 만일 집안에서 예수 얘기 다시 꺼내기만 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우리 어머니에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의 풍성한 사랑과 긴밀한 유대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인해 혈연적인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원해지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더 큰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주님을 모르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보다 믿는 성도들에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있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완전한 일치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10: 32-34)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하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빨간 제복을 입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한 자들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침뱉었으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일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것은 나의 줄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35-40)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9 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오면서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던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부끄럽고 무안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10: 41-43)

이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이들은 내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교도들은 권세와 권력의 자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위에서 통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44-45)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가 되는 비결, 머리가 되는 비결, 통치자가 되는 비결은 종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통로는 봉사’ (The path of greatness is through serv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을 위한 일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 하시는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10: 46-48)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32 킬로미터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때에 길에 앉았던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경들은 주변의 상황을 잘 감지합니다. 눈 이외의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떠들썩대는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으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 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 (10: 49)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매오는 겹옷을 내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때 그가 입었던 겹옷은 당시 거지가 입던 전형적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지다’ 라고 밝히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겹옷을 벗어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 이상 거지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일단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 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10:50-52)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볼때,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자기의 거지옷을 버리는 것을 보셨던것 같습니다. 이에 바디매오는 곧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저는 알레고리 형태의 해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영적인 알레고리 (spiritual allegones :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기록의 객관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의 일종 -역자주) 들이 아주 많이 끌어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 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1-10)

이 사건은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외침에 반박한 내용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것을 보고 참람죄에 해당한다고 날뛰었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예수께서 최초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때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예언의 노래가 명백한 시편 118 편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시 118 : 22-26) 본문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11 :9-1) 이라고 외친 것은 메시아 예언의 노래인 시편 118 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리들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축하며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눅 19:39-40)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 : 9 의 예언,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새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1: 11-13)

이 때는 4 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름이 되기 전에는 잘 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2 월과 3 월에도 처음 익은 큼지막한 무화과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열매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열매들이 잘 익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때, 그 속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몇 개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아무것도 없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1: 15-16)

예수님과 제자들은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도시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가는 지름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과 임의로 성전을 통과하여 다니는것을 금하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공적인 사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이 잘 기록하였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여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을 단호히 배척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은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돈을 부정한 이방인의 돈이라 하여 성전 금고에 넣지 못하게 하고, 유대의 '세겔' 만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로마돈을 히브리동전으로 바꾸어 현금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려면 반드시 이것을 '세겔' 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탁자를 놓고 앉아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전 과정에서 이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검사받아 보증된 소위 '정결한'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성전 밖의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비둘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비둘기 제사는 소나 양을 바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 2 천원에 비둘기를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제사드려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밖에서 산 비둘기를 이리저리 자세히 뜯어 본 후에 트집을 잡아,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성전 안에서 파는 만원짜리 비둘기는 어떤 것이든지 제사장의 보증을 받아 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의 바로 그 열망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지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1: 17)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인들을 사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들에 보내는 많은 편지들에는 거짓과 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11: 18-19)

예수님과 제자들은 월요일 밤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11: 20-21)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열매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 : 1-4 에도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라 비틀어져 죽을 형편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포도원을 거두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해 낼 다른 민족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비유로 우리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내용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 21: 33-42). 포도가 익을 때가 가까워져서 주인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이번에도 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이들을 보고 서로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고 말하고는 그 아들을 잡아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 : 1-5)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셨으나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즉시 무 화과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제 삶으로부터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부터 얼마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1 : 22-24)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큼니까? 지금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주목하십시오.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 엄청난 약속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네 십자가를 지라. 셋째, 주님을 따르라’ 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이 큰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나는 그냥 믿고 말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 나에게 최신행 메르세데스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라든가, ‘무인도에 별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거나,

‘요트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거나, ‘내가 말만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첫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약속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장할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11: 25)

우리가 잘못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므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변경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 34)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저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11: 27-28)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목사들에게 다가와서 ‘누가 당신에게 세례줄 수 있는 권위를 주었길래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요? 라든가, ‘누가 당신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소?’ 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흥분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면 저는 도전받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열두 사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 29-33)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 : 11)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요 15 : 3)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Tape #C2523
By Chuck Smith

12 장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 날은 성전을 두번째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은 제지들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 (12:1).

이사야 5 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 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뒀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 혀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이제 내가 내 포 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 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복을 돌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었도다.” (사 5: 1-7)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 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 그 농부들의 마음은 이사야서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 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림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이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 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2:2-9 절)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어주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맞고 돌팔매질 당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이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 님은 이전에 보내졌던 선지자들과는 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들은 그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주에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사건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 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꼭 맺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과 기회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이방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편 118 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 편에는 메시야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이한 시편 118 편 의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인용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상황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1-12) 고 담대히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돌을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돌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붓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단 2 : 34-35). 여기에서 돌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결국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공법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에 쓰인 돌은 모두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뜨여져서 성전 공사장으로 운반되어 왔는데, 그 돌들이 너무나도 완전하게 계획된 디자인에 딱 맞게 뜨여졌기 때문에 그 돌들을 차곡차곡 쌓는데 모르타르가 전혀 필요없었다고 합니다. 돌 과 돌 사이에 먼도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 채석장은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에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 엄청난 크기로 잘려진 돌들 이 성전의 어디에 박혀야 하는지 표시가 된 채로 공사장으로 운반되어 차질없이 제자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채석장에서 뜨여진 돌 하나가 성전 공사장으로 운반되어 왔는데, 인부들은 이 돌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를 몰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쪽에 치 워놓았다고 합니다 .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완공의 때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모퉁잇돌을 찾으려고 채석장에 갔는데 , 채석장에서는 이미 그 모퉁잇돌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런데 어떤 사람이 오래 전에 돌 하나를 쌓지 못하고 옆으로 치워두었는데 그 위에

덤불이 나있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이 버려진 곳 으로 가서 덤불에 덮혀 보이지 않던 그 돌을 파내 모퉁잇돌을 삼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실제로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다 는 이야기 입니다 . 그러므로 시편 118 편은 이렇게 엄청난 예언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편 118 편의 머릿돌 예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곧 그 머릿돌 , 즉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 . .” (12 : 13-14)

이들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다음 질문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 책이였습니다 .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였습 니 다 .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 불가하니이까 ? 우리가 바치리이 까 , 말리이까 ? ” 유다는 로마의 한 주 (a promnce) 였습니다 . 로마의 한 주로서 유다의 총독은 로마정부가 직접 임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로마정부는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되 , 그들로 하여금 로마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

당시 로마정부가 부과한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 이 세금은 그 땅에서 나는 소 산의 10 분지 1 을 로마정부에 바치는 것이였습니다 . 곡물은 10 분지 1 이었고 과일 은 5 분지 1 이였습니다 . 두번째로 소득의 5% 를 철저히 내야 했던 소득세가 있 었습니다 . 세번째로 유대인들은 단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1 년에 한 번씩 로마 정부에 1 데나리온을 내야 했습니다 . 따라서 살아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 물론 유대인들은 이런 세금 부과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 하였습니다 . 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께 한 질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든지 간에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 니다 .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 는 것이 가하다”라고 대답한다면 , 로마의 세금 제도에 아주 불만이 많았던 유대 인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 만 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대답한다면 , 그들 은 즉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치안 방해 교사자로 고발하여 체포당하게 할 계획 이었기 때문입 니다 .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이 질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아마 이들은 이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 내느라고 꽤나 시간을 들였을 것입 니다 .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 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 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2:15).

데나리온 동전 하나는 유대인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 내야 했던 세금이였습니다 . 그리고 이 동전에는 로마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 니다 . 당시의 황제는 타이투스였는데 가이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 예수께서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다니시지 않고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이 흥미롭습 니다 .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 가로되 가이사의 것 이니이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하나님의 것은 하나 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 (12:16- 17).

당시 현실적으로 이런 동전은 모두 가이사의 것, 즉 로마정부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동전들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것으로써 정부가 백성들에게 교환의 수단으로 빌려줘 사용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답변을 듣고 그저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거의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틀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의 모든 종교 체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도, 천사의 존재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12: 18-19).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중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이 율법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씨가 대대로 이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남동생이 당신의 아내와 결혼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수와 결혼하여 첫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남동생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당신의 이름을 따르게 되며,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동생이 ‘저 여자가 내 형 한테 한것을 봐서라도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수없어. 절대 안돼!’ 하면서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성문 앞으로가서 그들에게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남동생은 ‘제 형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싫습니다’ 하고 장로들에게 말한 후 신을 벗어 그 여자에게 건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당신의 남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신을 잃어버린 자” 라는 수치스런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이름은 아주 수치스럽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창세기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38 장). 이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경우로,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 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였는데 이도 역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유다는 문득 겁이 났습니다. ‘첫째, 둘째도 죽었는데, 셋째까지도 죽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네 아버지의 집에서 수절하도록 해라’ 하고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에게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습니다. 다말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 몸을 뒤덮은 창녀로 변장을 하여, 양털을 깎기 위하여 팀나에 올라온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와 하룻밤 자는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보증으로 다말이 요구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일당 그 창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 창녀에게 보냈는데 그 친구는 그 창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다말은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 었으며, 이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즉시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끌어내었는데, 다말은 바로 그 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 이에 유다 는 자기의 것인 줄을 알고 , 자기가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말로 하여금 무사히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다말의 계보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으로, 룻기의 여주인공 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이란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모압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기의 여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 즉 말론과 기론도 하나같이 이들을 낳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 외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불쌍한 여인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 때 두 모압인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를 듣고 그냥 모압에 남기로 하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라 ,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룻은, “나로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기 1:15-17) 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에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룻은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룻은 엘리멜렉의 형제였던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로서의 의무를 맡기로 하고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으로 , 오벳의 아들은 이새요 , 이새의 이들은 다윗이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룻과 보아스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를 자의 원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분명 한 것은 예수께서 오 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즉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구속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특별한 유대법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만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 세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 최후 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 (12 : 20-23)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정해서 말하여 ,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 사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 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즉 일곱 형제와 한 아내가 부활할 때 일곱 형제가 이 여자를 서로 자기 아내라고 우기며 싸우게 된다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 때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의 대혼란을 미리 예상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당신이 신장 이식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

부활 때에 그 신장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그 몸을 묻게 되는데, 그 때 몸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식물들은 그 몸이 분해되어 생긴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소떼가 와서 그 풀을 뜯어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들은 그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란 풀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주인이 그 소에게서 젖을 짜서 시중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체가 분해되어 나온 화학물질을 섭취하여 자란 풀을 소가 먹고 그 소가 만들어낸 우유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화학물질들은 어떤 몸을 입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현대인들이나, 죽은 일곱 형제 얘기로써 예수께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모두 같은 무지, 즉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2:24-26)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사두개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물론자들이었는데,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영원성’이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였지만 모세오경에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중시하던 바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12:28)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예수께 정직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앞서의 두 가지 질문, 즉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 질문과,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한 질문은 부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직한 질문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구하는 것이지만, 부정직한 질문은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많은 정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정직한 질문인지 정직한 질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것이 부정직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오늘 밤 당장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분들을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세례를 주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한 번 크게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 세례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당장 세례받지 않고 있다가 내일 죽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급상황 세례라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의 부정직한 질문을 받을 때, 결코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이런

종류의 질문에서 야기되는 논쟁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그 마음에 간절히 알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보여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거기서 중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기본적인 신앙에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합니다. ‘저는 매우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13 일째가 되었을 때부터 예배당의자에서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10 대 청소년들처럼 저도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제 자신의 신앙적 기초와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저는 철학과 생물학 수업 등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이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하였습니다. 무신론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상상력으로 조작해 낸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두 주간을 이러한 갈등 속에서 괴롭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쉽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주위의 세계를, 즉 제가 존재해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일까?’ 로 시작하여, ‘사람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기억할수 있게 된 것일까?’ 로해서, ‘무작위의 우연 (random-blind chance) 한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 들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창조물과 나 자신을 관찰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찰해 보면 그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연 속의 미묘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산소와 질소의 순환을 보게 됩니다. 지구상의 물이 땅의 3 분지 1 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것들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저에게도 계획을 두고 계실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본문에서 예수께 나아온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첫째 계명을, 즉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12:29)

예수님은 신명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는 ‘쉐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손목에 차던 작은 상자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당시에 유대인은 성전이 있는 산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곤 하였습니다. 이 작은 상자속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넣고 다녔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이는 ‘집합적 단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야키드’인데, 이는 ‘절대적 단일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손가락이 다섯개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손입니다. 손은 손가락 다섯개가 집합적으로 하나를 이룬 것이므로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집합적 단일체’에 대한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입니다. 이것이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우리 주님도 ‘에하드’, 곧 ‘집합적 단일체’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선약성경에서는 ‘야웨’를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평상시에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그 이름을 크게 중요시하지만, 신약의 기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여호와’나 ‘야웨’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신약의 기자들은 ‘주’에 해당되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일반적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2:9에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즉 ‘퀴리오스’, 구약의 ‘야웨’나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이 써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중에서 누가 참되신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가던 중 두번째로 물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회교와 불교를 연구하였으며,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초기에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계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길로 빠졌던 과거의 모든 종교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같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려서 오늘날에는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옛 종교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초기에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계시를 오늘날까지 지속시키지 못한 신이 었다면 그 신은 이미 죽은 신으로 판결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최근의 신흥 종교들을 거부 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아 사람들을 새로운 빛과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다가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오늘날에 갑자기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신이라면 이 신도 절대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성경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들과는 완전히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들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들이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들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한 존재 이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되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 : 8) 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치있는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가면서 성경의 예언적 측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를 선언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미래의 일을 말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내가 실로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런 예언적 측면을 볼 때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아주 실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아랍 국가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럽 통합이라든가, 요즘 가게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화된 현금 출납 등록기 등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선언하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12:30).

두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식적·인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신이 삶의 중심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축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고 있는 그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축은 ‘자기 자신’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은 허무와 좌절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전형적인 예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 슬프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 자신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의 모든 삶이 가치없는 ‘실수’ 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없으며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하여 이유도 없이 우연히 사라지는 삶이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되니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두번째 계명은 첫번째 것과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구약 의 모든 계명들의 축소판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균형잡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균형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직업적인 상담자를 찾아가서, “나는 왜 반발을 잘할까, 나는 왜 소리를 지를까, 나는 왜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일까, 나는 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애써 파악한 후에,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상담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뒤죽박죽된 내면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지만, 한 가지를 충고 하여 그대로 따르게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내면 생활은 또 다시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 내면 생활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면 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 중심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이웃을 우리 자신 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율법학자 (서기관) 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확증하기 위하여 재차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잡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왕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과 주로 모시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 왕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 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한 율법학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권위있게 선언해 주셨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는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12:35)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들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여러 곳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삼하 7 : 16)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야가 태어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되어 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말하기를 ---”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윗을 감동시켜 이 말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 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시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가정의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 자체가 법이었습니다. 그에게 89 살된 아들이 있다 해도,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고 물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은 “랍비님, 랍비님” 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오늘날 “박사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 ” 이들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뒤로 숙여 먹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뜨거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자리를 말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예수님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숙여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주관과 입장이 분명했으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에 신경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두뇌’에 관한 공부에 매료되어 도서관을 뒤지며 온갖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에 대하여 일종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실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많은 위선을 보았는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 목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였으며,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시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안됩니다. 무슨 말 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들 중의 한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으며 항상 정장만 하고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항상 넥타이를 매고 다니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운동을 즐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나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망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온갖 속임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에 매우 혐오감을 가졌으며, 이 문제가 저에게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네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주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연보কে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কে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12 : 41)

우리는 예수님이 전에 사람들의 자선을 베푸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 6 : 2-4).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한 자선가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자들이 거드름을 피면서 많은 돈을 연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연보함에 한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두 렵돈을 넣었습니다. 저도 이 동전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1 페니로 렵돈 100 개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동전 두 개를 연보함에 넣은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2 : 42-4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헌금을 얼마나 하였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우리를 희생한 것 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이 헌금은 나를 얼마만큼 희생한 것인가?” 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드릴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존경하는 다윗왕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장소로 자기의 땅을 쓰고자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땅과 번제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삼하 24 : 24) 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허무와 좌절만을 주는 저 아랫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히 권면합니다. 참 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 들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의도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 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13 : 1)

제자들은 지금 주전 20~19 년에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한 예루살렘 대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50 년이 걸렸으며 헤롯 대왕에 의하여 이 성전이 완성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거대한 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거대한 돌들 중 어떤 것들은 길이가 14.1 미터, 높이가 2.4 미터, 두께가 3.6 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최근에 서쪽 벽을 따라 진행되었던 고고학적 유물 발굴작업 중 남서쪽 귀퉁이에서 길이가 약 10.5 미터, 높이가 1.8 미터, 두께가 2.4 미터나 되는 거대한 모퉁잇돌들이 발굴되었을 때까지는, 전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발굴해 나가던 중, 길이가 약 13.5 미터, 높이가 약 2.4 미터, 두께가 약 3 미터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발굴하였는데, 이 돌들은 성전 건축에 쓰였던 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의 무게가 약 400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어떻게 떠다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쪼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옮겨와서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돌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신비이며 추 측 불가능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그들이 옮겨서 벽돌 쌓듯이 쌓을 수 있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 너무나도 완벽히 서로 딱 들어맞게 잘라졌기 때문에 모르타르를 바를 필요도 없이 그저 돌 위에 쌓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부식되었을텐데도 오늘날에도 두 돌 사이에 면도칼 하나를 집어넣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황금판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황금 판에 반사되어서 눈을 부시게 하므로 사람들이 성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가면서 헤롯에 의해 이 거대한 돌들 로 건설되고 있던 놀라운 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9 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예수님은 33 세였고, 달력상 4~5 년 정도의 오차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은 대략 47 번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3 . 2).

예수님의 이 특이한 예언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 40 년 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정복 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으로 도망하여 더 이상의 로마군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타이투스 장군은 이 성전을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유대인들만 잡으라고 명령하였으나, 술 취한 로마군인들이 성전에 불을 놓았고, 불이 온 성전을 태워 그 속의 유대인들은 모두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이 천장의 황금판을 녹였으며, 녹은 금이 돌들 사이의 틈으로 흘러들어갔 습니다. 그리하여 로마군인들은 이 금을 약탈하려고 성전의 돌들을 완전히 헐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뜨려지리라”고 하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트로피안 계곡의 유물 발굴 현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도로에까지 계속 파헤쳐진 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의 산에서 나온 돌들로, 실제로 그 성전의 돌들로 여겨지는데, 부취 지고 밀려나가 트로피안 계곡으로 떨어져 그 계곡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정확성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 하신 예언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들이 헤롯 성전의 산 어딘가에 아직도 존 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소가 지금 용역을 받아 방사능 탐지기를 사용하여 헤롯 성전의 산 지표면 아래에서 이 돌들을 찾고 있는 데, 이 새로운 탐지기는 그곳에서 발굴되는 많은 돌들 중에서 성전 건축용 돌과 단순한 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을 찾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만일 찾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 산 재단 (The Temple Mount Foundation) 의 회장인 새뮤얼로부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적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서도 가슴이 뻘뻘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3: 3-4)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떠나,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여, 상당히 높고 가파른 감람산에 오르던 중, 거의 반쯤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으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개인적으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도록 경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교회는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 양의 가족을 쓴 늑대들, 즉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13 : 6).

문선명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땅콩과 꽃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문선명은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 대궐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 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 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힘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 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13 : 7-11).

예수님의 이 예언은 명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 매맞고, 임금들 앞에 서기도 한 일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까지 섰다가 후에 네로 황제 앞 에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회 앞에 끌려나온 스테반의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테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특이한 예언에 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선교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이 예언이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프로그램 성취에 박차를 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당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먼저 만국에 전해야 종말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쓴 편지에서 복음이 이미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썼습니다.

오늘날 인도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그 기원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해 오는 얘기로는, 사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으며, 인도 교회의 주류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의해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대적인 도구들이 없던 상황에서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간증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행하던 것에 대하여 읽으면서, ‘바울이 만일 오늘날과 같은 제트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제트 비행기들을 마음껏 이용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지역을 걸어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6 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실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을 근거로, “아직까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결코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들어올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 못됩니다.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물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오늘날의 통신위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오늘의 말씀’을 위성 통신용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당국과 벌이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작동되는 작은 수신기로, 약간의 돈만 들이면 ‘오늘의 말씀’ 방송을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인공위성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각지에 있는 족속들이 태양 에너지로 작동되는 수신기를 이용해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납 전선을 불에 넣으면 전선의 차가운 부분과 뜨거운 부분 사이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여 그 수신기를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발달하고 있는 과학 기기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놀라운 수단들이 속속 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3 : 12-14).

예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앞에서 다니엘은 이 ‘멸망의 기증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 장, 데살로니가후서 2 장, 다니엘서 9 장과 12 장을 종합하여 제 개인적으로 이 ‘멸망의 기증한 것’ 에 대해 이해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성전 재건 조약들과 조치들이, 이제 곧 명성이 높아져서 통합된 유럽을 이끌고 나가게 될, 매우 강력하고 지혜롭고 빈틈없는 지도자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 장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맺은 지 3 년 반이 지난 후 그는 이 협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기증한 것’

을 세울것입니다 . 다니엘서 12 장 1 절에 따르면,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희생 제사 제도를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종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심지어 가능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3 : 15 에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7 년 대 환란 기간 중 나중 3 년 반 동안 자행할 파괴 행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 이 기간 중에 이 자가 자행할 ‘극단적 참람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 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능욕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의 반역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자행된 후 3 년 반이 지나면, 즉 7 년 대환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즉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새 나라인 의와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교회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찢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3 : 15-19).

이 환난은 이 세상이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극심할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환난보다 더 극심할 것입니다. 3 년 반 동안 일어날 이 환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강력한 반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종류의 가능한 가공할 만한 가상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오늘 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볼 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전세계적인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전체의 시나리오, 즉 대파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이 파괴와 환난이 꼭 인간의 기계들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난은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치게 될 심판에 직접 관여하실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 장에서 요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여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그 여자를 위해 예비된 곳) 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 년반) 를 양육받으매” (14 절) 이 말씀은 대환난 기간중,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의 어떤 곳으로 피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대환난의 나중 3 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6 장에서 지금의 요르단지역인 옛 모압에게 “너는모락을베풀며 공의로판결 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들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압에게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 대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거기에 숨어 있게 하라는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에 기록된 예언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일어날 때, 많은 유대인들, 즉 성전 재건을 도와주었던 그 자가 메시아라고 그때까지 믿고 주장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되어 이제까지 그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페트라’ 라는 바위 도시로 도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 : 15-16 에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가 도망친 유대인들을 추격하려고 군대를 보낼 것이지만, 땅이 입을 열어 적그리스도가 보낸 군인들을 삼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 (페트라) 에서 대환난기간이 지나갈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마태 복음에는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지들에게는 이 환난이 매우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급히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로 인해 도망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것은 이들이 도망할 때 매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13:20).

주님은 여기에서 인간 역사의 어떤 기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만일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13:21-22).

여기에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적과 기사는 항상 하나님께로 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시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3 절) 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3:24-25).

여기에서 예수님은 요엘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욘 3 : 15) 라고 예언한 것과 같은 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이 예언을 사도행전 2:20 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폐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 보니 여섯째 인을 폐할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 : 12-13).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13:26).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런 날입니까? 그 엄청난 환난이 지난 후에, 세상이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3:27).

‘자기 택하신 지들’ 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 그 기자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3:28-31).

구약에서 언급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 예레미야 24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열매 광주리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 : 10 의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기증하여졌도다”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1 : 7 의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떨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황폐해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경의 비유들에서 포도나무로 상징되었을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도 상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재출생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재출생을 목격한 세대가 곧 마지막 세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벧후 3:10). “그러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3 : 3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일부러 그자신에게 제한을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은 육체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외에도 다른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때에 대한 지식에서도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때를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날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던 동안에는 육체와 함께 제한을 받으셨으며, 본문에서 “그날을 모른다” 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받으신 제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성경의 깊은 곳을 통찰하게 되어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는 척 하는 것은, 속이 뻘뻘 드러다 보이는 순진한 거짓말이요 가정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이한 성경 해석 방식이라는 것을 내세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각 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공상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1843 년에 밀러라는 목사가 다니엘서를 이용하여 그날과 그 시각을 알아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8 장에 나오는 숫자 2300 일을 2,300 년으로 고쳤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일’ 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는 ‘일’ 을 ‘년’ 으로 해석하고는, 1843 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2300 일은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정화한 때 이며,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 목사가 ‘일’을 ‘년’으로 해석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충실한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밀러 목사는 그들과 함께 흰색 옷을 입고 언덕에 올라 앉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여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1978 년 4 월 1 일이 그날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테이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6 월 30 일이 그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말씀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3 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이 상황에서의 최고의 충고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3 : 34-37).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오실 수도 있고, 이른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대 속에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4
Tape # C2525
By Chuck Smith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인 일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에 다시 가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시 가서서 가르치신 후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거대한 성전 돌들을 대단하다고 여겨 보시도록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즉 화요일을 기준으로 이틀을 지나면 목요일로, 목요일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에서의 하루는 전날 저녁 6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화요일의 이틀 후 오후는 목요일 오후이므로, 우리의 계산으로하면 실제로는 새 날이 시작되기 직전인 수요일 오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목요일 밤에 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기보다는 목요일인 유월절에 달리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무덤 속에서의 삼일 밤 삼일 낮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에 달려있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전통적 으로 받아들여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덤 속에서의 삼일 밤과 삼일 낮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추론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택하느냐, 버리느냐” 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사람들이 ‘날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문제 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꾀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4:1-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축제일, 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들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의 사명을 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상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던 바로 그 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상징적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는 중요한 축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축제일에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 가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양의 희생, 무교병을 떼어 먹고 그 부스러기를 숨기는 등, 유월절 축제에는 온갖 종류의 그 의미를 묘사하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교병의 중앙을 잘랐으며, 왜 그 부스러기들을 숨겼으며, 왜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들이 많았으며, 예수님이 이 모든 상징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로, 유월절의 50 일 후에 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Pentecost) 의 ‘pente’는 ‘50’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때 들판에 나가 밀밭과 같은 곳의 한 구석에서 한 다발을 베어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기 전에는 그것을 따다가 팔거나 먹는 행위는 엄한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두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를 기념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들이 드린 교회의 첫 열매는 교회의 첫 전도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첫 전도사역은 유월절날 베드로가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시작되었으며, 이 때 약 삼천 명이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열매이며, 수확은 그때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열매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초막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40 년간의 광야 유랑생활 속에서 이적적으로 보존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광야에서의 방황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신약적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초막절 축제의 신약적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가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때 초막절의 신약적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축제는 성령강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첫 열매가 교회에 더해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축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즉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때가 초막절 축제가 성취되는 때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4: 3).

당시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향유는 인도에서 가져왔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의 집에 손님으로 간다면 그 집주인이 그 귀한 향유 한 방울을 우리 몸에 발라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도 가끔 향수를 한 방울씩

제게 발라 줘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런 종류의 향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아예 병을 깨뜨려 그것을 모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14: 4)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내어 말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회계로서 금고를 지니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훔쳐서 개인적으로 써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약 10 개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14: 6-8)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아주 깊이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9)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자신은 비록 죽을 것이지만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은 절대로 헛되이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 : 58) 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허비하였습니다. 저는 허사로 끝나버린 많은 계획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하나도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은 가롯 유다는 곧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때 그 열둘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나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 11-21)

주님이 한 개인에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백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보 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삶의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는 확실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사단을 삼켜 버릴 하나님의 진노의 불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 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4: 22-2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유월절 의식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부셔진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눅 22 : 19). 이제 앞으로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죽어 그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그 양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힘을 주었던 그 양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14: 26)

당시에 유월절 축제가 끝나갈 때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는 시편 118 편이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 118 : 22-26)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노래를 부르시고 나서 다락방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가리라.” (14: 27-28)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이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고 자기가 그 예언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감히 예언의 말씀을 거스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때는 여하간에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13 : 31)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즉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 을 인용하여,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 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아를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놓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하는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내 가 진실로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졌을 때 새 날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께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적으로 신실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라거나 사랑의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의 약한 육체의 실패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제보다 미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만 때문에 우리는 주께 쉽게 맹세하거나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오! 주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물론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흔들시며, “너, 또 왜 그러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약속이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저 자신의 장점을 근거로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나의 현 재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나중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은 얼마나 비참한 것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잘한 점을 근거로, 나의 받을 만한 인물됨을 근거로, 나의 선함을 근거로, 나의 노력을 근거로, 그리고 나의 거짓된 약속을 근거로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격렬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더 사실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때는 우리에게 취약점이 있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요약하면서 몸짓이나 손짓으로 설교내용을 표현 하시곤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슬픈 듯이 흔들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큰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입니다. 큰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도 더욱 힘있게, 더욱 격렬하게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겻세마네란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나무 과수원이었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아담한 동산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었으며, 그곳에서 올리브 열매를 압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밀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14: 32-34)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정의 동요를 깊이 느끼기 시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조용히 흐느끼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통 때와는 너무 다른 무거운 흐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뒤에 잠시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사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

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일은 참으로 힘겹고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습니 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맞이해야 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예수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다음날 너무도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대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고통 가운데 싸웠던 그 내면의 싸움을 쉽게 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밤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저를 위한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적인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겟세마네 동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나머지 전투는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정말로 치열한 전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기도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마 12 : 29)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집의 강한 자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털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야 기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더 많은 것들을 결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 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 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 : 2 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한 요한계시록 5 장의 환상을 예수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듭니다. 그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저의 삶 속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시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에 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므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 같지만 승리로 향하는 길은 항복의

길이요, 포기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요 정복자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드리는 순간, 즉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지금 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 상황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 저희가 예수께 무 엇으로 대답할줄을 알지 못하더라? (14: 40)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 직후에도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얼마 동안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는, “베드로야, 너는 용기가 있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구나. 너는 잠재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수 있는 큰 잠재력이구나. 오! 하나님, 베드로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요한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사랑의 영을 가졌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나 있는 도시의 성벽을 따라 언덕을 내려오고 있던 로마군인들이 시끄럽게 내는 발자국 소리,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만이다 .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들에게서 피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14: 43-45)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 성경에 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가 예수니 잡으라’는 표시로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 ‘입맞춤’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한 가지는 , 어린 아이의

이마에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살짝 데었다 때는 것 같은, 애정을 표시하는 가벼운 입맞춤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한 단어는 연인들 사이의 정열적인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고 했을 때 쓰인 헬라어는 후자의 단어였습니다. 그는 정열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14: 46-47)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갑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 버렸습니다. 그의 귀만 자른 것은 아직도 잠이 덜 깬 베드로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머리를 벨 뻔 했으니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귀를 집어 붙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밀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14: 48-49)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려 하거나 변경시키려 한다 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성취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남들과는 많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설교자들은 현재의 세계를 보면서 낙담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세에 있으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막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성경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가는 겨우 12 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여행하였는데, 의문의 여지없이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14: 51-52)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마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여 기록한 부분은 딱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 특별한 구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성경 학자들은 마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 넣은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 일행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열심히 몸으로 수고한 헌신적인 부인들 중의 하나로 추측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린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아주 매료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마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 두르고 있던 흠이불을 버리고 벌거숭이로 정신없이 도망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14: 53)

역사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였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가야바는 로마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였고, 안나스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14: 54-58)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 : 19)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헤롯 대왕이 지은 돌로 된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17-18)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지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던 자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 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14 : 60-61)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재차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 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14: 63-64)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것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 50 : 6) 고 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주먹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 주먹의 충격을 완하시키기 위한 반사행동을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주먹이 들어오면 우리 몸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그 충격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몸의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이 잘못 디디지 않도록 해주므로, 우리는 굴러떨어져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단이 눈으로 보고 어림잡은 것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게 될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의 반사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작 4-5 센티만 착각하더라도 우리는 발을 헛디뎠다 빠가 부러질 것입니다. 즉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충격은 우리의 몸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먹질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언제 부상을 입습니까? 그가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급하고 강한 태클이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을 때, 그 선수는 넘어져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약 127 킬로그램이나 되는 거구의 수비수가 공격수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여 막을 때에 공격수가 다행히 그것을 미리 보면 부상을 덜 입지만, 전혀 보지 못했다면 그 선수가 그 충격을 대비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서는 몸이 반사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 구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사 52~53 장) 대로,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 부어 오르고 상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다 놀라 “이게 과연 사람의 얼굴인가?” 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드러 맞아 붓고 상처를 입어 도저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매맞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사 53 : 5)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 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밀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답이 곧 두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답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14: 66-72)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감정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그 약속은 신실한 것이 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 일어서려는 의도였지 넘어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자기확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 줄 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 : 12) 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 은 하되 저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다른 활동들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눅 18 : 1)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기 보다는 낙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난 못해. 너무 끔찍해. 너무 무서워”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낙망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처소는 능력의 처소입니다. 세번째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불에서 위로를 얻고 몸을 녹이려 하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서는 안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흥미롭고 짜릿한 재미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불에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만, 우리가 그리로 가면 우리는 패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한 부류에 속한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가까이서 따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주님을 따라간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 3 : 14) 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설득당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헌신하기로 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 그 잔을 마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영적 · 신체적 · 감정적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반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기꺼이 그 잔을 마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제 각각 헤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16
Tape # C2526
By Chuck Smith

예수님은 이미 깊은 밤에 켈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즉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으며,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무슨 죄목으로 기소하여 로마법정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들 에게는 죄수를 사형에 처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정부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 내용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께 단도 직입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에 대한 참람죄 때문에 로마법정에 가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법정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신성모독죄 (참람죄) 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고소할 적당한 죄목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15: 1)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정부에 고소한 죄목은 로마정부에 대한 반란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로마법정에 세워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죄에 해당 하는 반란죄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 변호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 그러나 예수님 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 (15: 6)

여기에서 명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유월절이었으며, 유대 백성들의 요구로 죄수를 풀어주던 전례는 로마정부의 전례였습니다. 그 때, 폭동을 일으켜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 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 날, 이 특별한 유월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전례대로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15:9-15)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에 대하여 언급한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느껴서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하려던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즉 그때까지 발견된 고대 로마의 문서들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총독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순들을 발견해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은 결코 존재 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을 실고 있으므로 믿을 만한 기록이 못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유대 총독은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기록에도 없으므로 성경의 기록은 허위이며, 따라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선언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출판사들은 소위 이들의 발견 내용들을 출판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고고학적 발굴 이 계속됨에 따라 그들은 우연히도 아주 흥미로운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에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의 이름과 그의 공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성경 비평학자들과 성경의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없는 모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모루를 열심히 내리 친 망치는 찌그러지고 닳아 쓸모가 없어져 옆으로 던져집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이 왕성하게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는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실제 인물이었음이 완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 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며 성경을 불신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문들이, 성경을 불신임할 만한 건덕지가 있거나 하면 대서특필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꼬리 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살금살금 도망을 치면서, 사람들이 빌라도가 실재인물이 아니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 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 : 7) 고 예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에 모인 유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 때문에 그곳 에 모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 즉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바라바 의 석방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라바 의 죄목은 반란죄였습니다 . 반란죄는 유대인들에게서 악하거나 나쁜 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반란의 문제는 로마정부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부딪혔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던 많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으므로 반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한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점령지들에 대항하여 항상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잡혀 있던 바라바는 감히 로마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

으킨 자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구경하려고 모였다고 보다는,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들의 민족적 영웅인 바라바를 석방하게 할 목적으로 모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군중들의 변덕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던 군중들이, 이제 며칠 지났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서로 전혀 다른 두부류의 군중이었지, 같은 군중의 변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사형당할 처지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인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한 것은 그의 죄가 다소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한 것은 그의 반란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서 그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한 반란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 대신에 무법한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실로 슬픈 선택이요, 법 보다는 무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하여 방향성을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매우 보기 드문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빌라도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는 문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광대극이었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부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라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기도 한 이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 즉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 관으로서 내가 내리는 판결이 나의 운명을, 나의 영원한 처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편리의 정의로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잘 못된 줄 알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에게 압력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강한 압력이 들어올 때, 옳고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내 지키거나기보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채찍질은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사실 이 채찍질은 로마정부에 의해 행해지던 가장 가혹한 형태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로마시민으로서 죄인된 자들에게는 정식 재판없이 이 형벌의 집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채찍질은 죄수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옛날의 고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수에게 뜨거운 불빛을 계속 비취대며 밥도 먹이지 않고, 손톱을 뽑고, 귀에 구멍을 뚫고, 뺨을 때리면서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진하게 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여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는 심문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정부에 의해 행해진 채찍질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수를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어 그의 등허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납조각과 유리조각이 들러붙어 있는 채찍으로 죄수의 등을 39 번 갈김으로써 문자 그대로 죄수의 등허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죄수가 채찍질 당하는 동안 그 옆에서는 항상 서기관이 대령하여 죄수가 비명을 지르면서 자백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강한 채찍질이 등허리에 가해질 때마다 비명과 함께 자백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채찍질의 강도를 점점 줄여가며 자백을 다 받아내고서는 죄수를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당시 로마정부가 식민지의 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채찍질은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정신이상이 되거나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백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치는 자는 죄수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여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백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 흉악한 채찍을 남김 없이 다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 일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갔는데 그 곳은 총독 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군대를 거기에 집합시키고 예수께 왕의 의복 색깔인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뒤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관이라고는 가시관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가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영정귀를 낼 것이라” (창 3 : 17-18)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예수께 씌운 것이 너무도 적합하게 들어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예수님은 이전에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얼굴을 가린 채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 보아라. 우리에게 예언해 보아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면서 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재미있어서 큰소리로 웃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 고나가니라(마 15 : 20)

그들은 실컷 재미있게 즐기고 난 후 그들의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 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창 같은 무거운 물건을 자기가 갖고 가기 싫으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의 어깨 위에 자기의 짐을 얹어 놓고는 따라 오라고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에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그 로마 군인이 자기의 창을 우리의 어깨에 얹고서 “나를 위해서 이 짐을 들고 1 마일을 가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아직 남아 있지만 당시 유대에는 로마정부가 설치해 놓은 이정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에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그 짐을 지고 1 마일을 가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1 마일 거리의 봉사만을 의무규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1 마일이 지나자마자 그 짐을 던져버리고 가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을 염두에 두시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1 마일) 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 (2 마일) 를 동행하라” (마 5 : 4) 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남자 어른 유대인들이 전세계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처럼, 틀림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게도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하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 일로 인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1:1 에 ‘니게르라하는 시몬’ 이 나오는데, ‘니게르’ 는 아프리카출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 1 차 선교여행에 선교사로 파송한 안수받은 장로들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의 아들들인데, 성경에는 ‘루포’ 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던 시몬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가능성을 뒷 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추적하면서 추측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에 이르러 .” (15 : 22)

이 곳이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과 헤롯 문 사이의 예루살렘 성벽을 가로질러 보면 절벽 한 부분이 황폐해져 있는데, 이 곳이 고대에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 많이 채취된 결과, 그 부분이 우연히 해골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끌고다’라는 지명이 울퉁불퉁한 절벽의 표면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곳이 ‘해골의 곳’ 이라고 불리웠던 또 다른 이유는, 그 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아마도 많은 유대인 죄수들을 십자가로 처형했던 장소였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죽을 때 까지 거기에 그냥 놔두었었는데, 어떤 죄수들은 죽는 데 6 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출혈과 영양실조로 아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체를 절단하여 땅에 버려두어, 개들과 새들이 와서 사체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처형을 당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개들과 새들이 살을 다 뜯어먹고 남은 해골들이 많이 덩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끌고다’, 즉 ‘해골의 곳’ 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로 든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실로 오늘날도 그 절벽의 한 부분은 아주 인상깊게도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곳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15:23)

당시 예루살렘에 한 여성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선단체로, 이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섞어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형장에 온 죄수에게 먹였는데, 이것은 마취 효과를 냈으며, 죄수들을 마비시켜서 십자가 처형의 극심 한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수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에도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의 세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순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으신 방법 그대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니중에 돌에 맞아죽거나, 십자가 에 매달려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불에 타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님은 이들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하여, 그리고 같은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후에 주님을 위하여 같은 고통과 고문을 겪을 자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 위해서, 그 마취용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15 : 24)

어떤 자는 예수님의 신발을, 어떤 자는 허리 띠를, 어떤 자는 겂옷을, 어떤 자는 머리에 두른 수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솜씨 좋은 손으로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찢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 옷을 찢어가지면 누구에게도 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15 : 25)

제삼시는 아침 9 시를 가리킵니다. 낮은 아침 6 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은 오후 6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 (26 절) 당시에는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으면 자신이 직접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때 4 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행했는데, 한 군인이 그 죄수의 죄목이 쓰여진 패를 들고 앞에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법정에서 형장까지 급히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내를 천천히 돌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특히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사형장까지 천천히 갔습니다. 맨 앞의 군인은 ‘이 죄인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적힌 패를 들고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성내를 통과하여 형장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인 ‘유대인 의 왕’ 이라고 쓰여진 죄패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윗 부분에 달아놓았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15 : 27)

여기에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사 53:12) 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하고” (15:29-3)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이 헤롯이 지어 거의 완공단계에 있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예수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 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렸으나, 즉 죽였으나, 예수님은 삼 일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즉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 10 : 18) 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동양에 가면 동양 사람들의 열기와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들을 파는 가게에 가 보면 주인과 손님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을 휘젓기도 하며,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칼을 빼어들고 서로 죽이려고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서로

소리지르는 것과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머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정열적인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격한 감정으로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15: 31)

그들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은 구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들, 절름발이었다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된 자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등,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참 재미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결백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빌라도에게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빌라도는 아마도, “너희 유대인들아, 썩 꺼져라” 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도 결백을 호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정의 파고는 높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서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 52-53) 고 말씀하신 것을 당장에 시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 이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라고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구했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는 대제사장들의 말에는 일종의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로 보면 옳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했다면 자기 자신은 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만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하시려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 는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같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 (15: 32)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박힌 자 중 하나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 까지 계속하더니 .” (15: 33)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가 제삼시, 즉 오전 9 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육시가 되었는데, 제육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하여 제구시까지, 즉 오후 3 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낮에 온 땅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식으로 인한 일시적 어둠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유월절이었으며, 만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만월 때에는 태양과 달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낮의 어두움이 일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던 무서운 범죄를 보지 않기 위하여 마치 하늘이 얼굴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 시까지 어두움이 천지를 덮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의 언어 그대로 기록된 곳은 이주 드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원래의 언어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아, 엘리아” 라고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시편 22 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는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온 세상의 죄가 실려졌을 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모든 친교와 공존과 하나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분이,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영광 을 함께 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 그분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올려놓으시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결과들을 몸소 체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메아리처럼 따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 41) 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 8-9 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다시 한 번 실감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 웰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움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찌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운명 하시다 .” (15: 35-37)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 10 : 18) 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책임을 지우려고 애썼던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 습니다. 그 누구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 (15: 38)

어떤 사람들은 이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뒤로 감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하게 나아 가도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즉 길이 났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정결의식이나, 희생제사를 더 이상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사람을 위한 단회적 희생제사가 이미 드러졌습니다. 이 제사는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여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6) 고 말씀하셨습니다 . 참으로 영광스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 (15: 39)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아, 가도 좋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실 능력 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 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 (15: 40)

이 여자들은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상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막달라’ 라는 지명으로 다른 마리아와 구별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는데, 물론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알패오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15: 41)

이 세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이 여자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옷도 꿰매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의 일상생활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인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15 : 42)

예수께서 오후 3 시에 운명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세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등 일을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 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기 전에 시신과 다른 모든것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으매 때에 막 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5: 43-37)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졌습니다. 골고다 바로 근처 모퉁이에서 옛 동산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산에 물을 대던 우물도 발견되었으며 물론 거기에는 무덤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으로는 이 무덤이 예수님이 실제로 3 일 밤 3 일 낮 동안을 누워 계셨던 바로 그 무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무덤 속을 걸으면서 이 곳이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이 3 일 밤 3 일 낮 동안 눕혀져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며 몽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무덤 앞에는 작은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굴리는 길이 었습니다. 지금은 이 무덤을 막던 돌이 없습니다. 돌을 굴렀던 길의 흔적들이 나 있을 뿐입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낸 뒤, 좋은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매고는 그 무덤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시체들에게 하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로 아주 세심하고 잘 싸여졌습니다.

마가복음 16 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기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16: 1-7)

우리는 여기에서 최초의 부활절 아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러 막은 사실은 15 장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덤 엽구를 막은 돌 문에서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개념이 암시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 : 18)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던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 즉 억압받던 자들을 도우신 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절름발이의 발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신 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일 등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는 바를 본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였으며, 잔인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넣고 돌을 굴러 그 무덤 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문 뒤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돌문 뒤에는 죽은 종교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종류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속의 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이 일단 한 번 죄를 지어 잘못하면 그에게는 구속의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형벌제도는 이제 어떤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교정연구소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의해 참으로 많은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이것을 형벌연구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회학의 영향으로 교정연구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문제는 오직 그들의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면 그에게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 중 1천여 명을 상대로 표본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옥의 전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연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었던 1천여 명의 죄수들 중에서 교정연구소를 통하여 사회에 잘 복귀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출소하고 얼마 안되어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성공적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사법부와 경찰의 연구소들이 내어놓는 많은 책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사람을 교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헬라의 철학, 즉 이미 버린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상, 사람이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될 희망이 없다는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 : 10)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습니다. 그 무덤의 돌문 뒤에는 ‘죽은 구속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속의 소망이 죽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그 돌문을 치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닫힌 돌문을 그대로 통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의 돌문이 굴러진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걱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걱정들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도착 할 때 쫓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케 할 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6 : 8)

무렵에 있던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마지막 보았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패로 인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신 때는 닭이 울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기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뻔히 노려보다가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했을 때, 베드로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바깥 뜰로 슬그머니 나간 베드로를 다시 보고서 이 소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와 한 께예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습니다. 또 잠시 후 곁에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쓰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 께일거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실패! 실패! 주님, 나는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에 특별히 부연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분명히 실패했다. 하지만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부활하였다. 이제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일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해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로 시작 되는 9 절부터 마지막 절인 20 절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 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원본이 아니라 나중에 사본을 베끼던 자가 첨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특이한 부분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두 개의 고대 사본인 ‘시내산 사본’ 과 ‘바티칸 사본’ 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것이 그들이 “이 부분은 가짜다” 라고 선언하는 근거입니다. 시내산 사본은 주후 400 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본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된 사본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본은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시내산 사본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그 신빙성이 더 큽니다. 이레니우스와 히폴레이터스는 마가복음의 이 특이한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레니우스와 히폴레이터스 둘 다 주후 200 년에서 300 년 사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사본이 제작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시내산 사본보다 더 오래 된 사본에서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성경 원본 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제작된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실리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수리아) 지방에서 나온 모든 사본들에는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개의 사본들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이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본들이 제작되기 훨씬 전의 사람인 이레니우스와 히포레이투스같은 훌륭한 교부들이 이 부분을 인용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6: 9)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6: 10)

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 일이나 지난 날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소망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 의해 건설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 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은 저기 동산에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신 일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 (16: 14)

우리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의심이 많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반박하지 못할 엄청난 증거는 제자들의 삶 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변화된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 15)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세계를 향한 명령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계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 16)

우리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 : 12) 고 짧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둘 중의 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이냐 저주냐?” 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을 밀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6: 17 -18)

이 표적들은 전세계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주어진 표적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새 방언, 새 언어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위클리프 선교회가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번역선교는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와 같이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귀신론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우리는 바울이 탄 배가 파선된 뒤 모든 사람들이 섬에 내려서 모닥불을 피워 불을 쬐고 있던 중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 28 장). 그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 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서는, 바울이 갑자기 격렬한 진통을 하며 넘어져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독 털어 버렸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교 집단에서는 일종의 영적 광란 상태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는등 신비적인 의식을하는 중에 어리석게도 방울뱀을 들여와 서로에게 돌려 전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급진적인 목사는 교역자들을 모아 놓고 주위에 독약을 놓아 두고 그들이 과연 그 교회의 교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을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충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2 급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려보아라. 성경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4 : 5-6). 예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서 방울뱀을 집거나 독약을 마심으로써 지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리석게도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16: 20)

표적은 결코 속임수나 현란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전파한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일으킨다고 광고하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기적을 보라” 라든지, “와서 치유함을 받으라” 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표적과 이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표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확증해 주는 데 있습니다. 표적은 따르는 것이지,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표적을 앞세우거나 표적을 가지고 대단한 일이라도 난 것처럼 확대시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한 순서를 뒤바꿔 놓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표적은 전파된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하여 비취지게 하소서. 어둠에 속한 지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인 말씀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는 질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소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께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바 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왕께 드리십시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분의 지팡이에 입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그 분을 섬기는 삶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실로 돌아 가십시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분께 자신의 삶의 깨어지고 흠어진 조각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가치있는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속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그리고 기회주시는 대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형통 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